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어과 교과서의 이숍우화 수용양상

-개화기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서 경 임

# 국어과 교과서의 이습우화 수용양상

-개화기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

교수지도 강진호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서 경 임

# 인 준 서

서경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장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이 논문은 국어과 교과서의 이습우화 수용양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근대와 함께 형성된 교육제도와 교과서에 처음으로 수용된 외국서사문학인 이습우화가 현재까지 꾸준히 수록되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 교과서 속의 끼침의 의미를 염두에 두었다. 교육은 인위적으로 마련한 목적 지향의 인간 육성행위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교과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기에 교과서 발간 당시의 시대상이나, 교육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습우화 수록 양상의 특징이나 교육적 효과와 의의 등을 밝히는 것을 역점으로 두었다.

첫째, 이습우화의 정의와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장르가 갖는 특징과 교육적 효과가 어떻기에 우리나라 개화기에 유입된 이래로 국어과 교과서에 꾸준히 실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각 시대별 특징과 교육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국어교육의 흐름을 알게 하고,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형성의 근간을 살펴보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습우화 중 ‘욕심 많은 개’를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여 각 교과서별 세부적 차이점을 살펴 수록 양상의 특징이나 교육적 효과와 의의 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각 시대별 국어과 교과서의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 수용양상을 분석하여 시대적 특징과 수록의 이유와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방법	7
II. 이습우화의 이해	9
1. 이습우화의 정의와 기원	9
2. 이습우화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10
3. 이습우화의 국내유입과 수용	11
III. 개화기와 이습우화의 수용	13
1. 근대교육과 아동	15
2. 이습우화의 수용 양상( - ‘욕심 많은 개’의 경우)	16
2.1. 소학교령 이전	16
2.2. 소학교령 이후	22
IV. 일제시기와 이습우화 수용	39
1. 조선교육령과 조선어 독본	39
2. 1차 교육령과 이습우화	43
3. 3차 교육령과 이습우화	48
4. 7차 교육령과 이습우화	50
V. 해방 이후 교과서와 이습우화	54
1. 해방기와 국어교육	54
2. 국어 교과서와 이습우화	57

3. 4차 교육과정 ————— 58

VI. 결론 ————— 61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국어교육학에서 기초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국어교육사<sup>1)</sup>를 살펴본던 중 개화기 이후부터 국어과 교과서에 이습우화가 꾸준히 수록되는 점에 주목하고, 그 양상과 특징 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국어교육의 역사 연구는 지난날의 국어교육의 흐름을 알게 하고,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형성의 근간을 살펴보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과서 발간 당시의 시대상이나 교육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습우화 수록 양상의 특징이나 교육적 효과와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이습우화는 단형서사문학 장르로 분류할 수 있는 글체 재료 우리의 전통적 옛이야기가 아닌 서구 번역문학<sup>2)</sup>이다. 이습우화의 내용은 현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가진 동물들이 등장하여 경솔함, 욕심, 잔인성, 허영 등의 여러 성격을 상징하여 교훈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sup>3)</sup>. 이러한 내용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1896년 학부편찬 교과서인 『신정 심상소학』에 수록된 이후로 문학성과 함께 도덕 교육적 효용도 인정받아 꾸준히 국어교과서에 실리면서 국어교육학 내에서도 도덕적 문학교육의 성격을 가진 학습 제재<sup>4)</sup>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1) 국어교육과 국어과 교육의 학문적 발전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국어교육사’는 국어교육을 해온 역사로 정의된다.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탐색』, 박이정, 2001, pp.27-28

2) 김태준, 「이습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 24호, 1981, pp.118-119

3) 김정수, 「이습우화에 나타난 도덕성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34

4) 남미영, 「한국 문학에 끼친 이습우화의 영향연구(I)-문학교육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989, p.234

본고에서는 국어교육 내에서 이습우화가 지니는 위상을 좀 더 명확히 분석하고자 개화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국어과 교과서에 어떠한 형태로 수용 및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성을 배제한 채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어 ‘시대배경과 교육 이념’,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편찬된 ‘국어과 교과서의 특징’들을 함께 고찰하여 기술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어교육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가 곧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이습우화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임을 강조하였다.

단, 이습우화 학습 제재들이 『신정 심상소학』에 수록된 이후로 백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에 따라 발행된 교과서의 수와 방대한 내용 속에서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몇 가지 제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두었다.

첫째, 이습우화는 주로 초등저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화기 이후 교과서 수록 범위를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로 제한하였다.

둘째, 각 시대별 교과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이습우화 중 교과서 수록 횟수가 높은 ‘욕심 많은 개<sup>5)</sup>’를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여 세부적인 수록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자료는 아세아 문화사(1977)에서 발행된 영인본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sup>6)</sup>』 제 1권에서 8권까지의 17종 교과서 중 해당 텍스트 ‘욕심 많은 개’가 실린 초등학생용 국어과 교과서이다.

## 2. 연구사 검토

교과서에 수록된 이습우화에 대한 고찰은 『한국근대 번역 문학사연구』에

---

5) 이습우화인 ‘욕심 많은 개’는 시대별 교과서 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실려 있기에 일반적으로 통칭하기 위하여 ‘욕심 많은 개’라 명명함.

6)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 문화사, 1977

서 김병철(1975)<sup>7)</sup>이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나, 개화기 교과서에 최초로 수용된 이솝우화를 찾아 정리하는데 그쳤다.

그 이후에 김태준(1981)이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를 통해 김병철(1975) 연구의 이솝우화 분류의 오류를 정정하고, 이솝우화의 정의에 따른 개화기 교과서 우화 교재 일람을 정리하였다. 이솝우화가 학부 편찬의 『신정 심상소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해졌고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한국 전래동화와 함께 도덕교육의 중요한 교재가 되어왔다는 것을 밝히며<sup>8)</sup> 이것이 곧 문학교육의 역사와도 관련하는 문학사적 현상이라는 것을 밝혔다. 초창기의 이솝우화는 단순히 일본의 교과서를 중역하는 방식으로 채용되는데 후기로 갈수록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문학적 장르의 관념과, 도덕적 효용을 중시하는 기능적 관점의 입장에서 교과서 속의 이솝우화가 수록되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의 끝에서 연구자인 김태준(1981)이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신정 심상소학』에 수록된 이솝우화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미술사, 비교문학 내지는 교육사부분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용호(2006)는<sup>9)</sup> 「고종·순종시대 국어교과서의 서사유형 연구」에서 고종·순종시대에 발간된 교과서 가운데 국어과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거기에 수록된 서사체 단원을 모두 조사하여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고종·순종시대의 서사체 단원들은 교과서 서사라는 특수성을 갖기는 하지만 전통 양식을 변용하면서 새로운 시대의식을 담아내려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7) 김병철,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을유문화사, 1975

8) 김태준(1981), 앞의 책, p113-116

1895년 7월에 공포된 칙령을 통해 교과목을 심상과의 경우 수신, 독서, 작문, 산술, 체조를 기본으로 했다.(소학교령8조) 그러므로 자연히 수신과 독서에서 도덕과 국어의 교육을 담당해야 했고, 이것이 심상소학의 중심과목이었다. 그러나 수신교과는 지금의 일반사회와 같은 성격이었고 도덕적 문제를 주로 다룬 것은 독본(국어)라고 본다. 따라서 독본 교재 중의 이솝우화도 전래동화와 함께 도덕적 교육적 중요성이 배려된 교재였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9) 전용호, 「고종순종시대 국어교과서의 서사유형 연구」, 『어문논집』, 2006

것을 밝혔다. 특히, 근대적 학제 개편과정에 간행된 교과서에 수록된 매체상의 특성 때문에 짧은 서사체의 형식을 지닌다. 이것을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로 유형화 할 때, 경험적 서사는 그 이전 시기 전(傳) 양식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허구적 서사는 우언(寓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문 경전 대신 국문을 사용할 줄 아는 문자 해독층 확대를 위해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는 짧은 서사체를 통해 근대소설의 독자층이 성장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과서 속 ‘이솝우화’에 관한 연구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살핀 것은 아니고 허구적 서사와 경험적 서사의 분류를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서사체를 유형화하고 그 존재에 대한 개관을 진행하였다.

허경진, 임미정<sup>10)</sup>(2009)이 「윤치호 『우순소리』의 성격과 의의」에서 『우순소리』를 『이솝우화』의 번역본으로 전제하고 저술 배경과 의의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본, 중국의 번역과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번역본이 출현하였을 때 단순히 원본 그대로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자국의 문화와 전래이야기를 고려한 새로운 ‘이솝우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치호의 『우순소리』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해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다. 그러나 이 또한 교과서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적인 효용정도만 언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김경정<sup>11)</sup>(2010)은 「『이소호모노가타리(伊曾保物語)』 연구-『신정 심상소학』의 「貪心있는개라」편의 원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에서 『신정 심상소학』의 서문을 밝히며 편집자의 의도를 연구하고 이 독본 교과서의 특성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개화기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욕심 많은 개’를 중요 텍스트로 선정하여 세부사항을 밝힌다. 그 외의 개화기 교과서속 ‘욕심 많은 개’ 텍스트도 정리하였지만 간단하게 어떤 교과서에 제재가 실려 있는지에 대하여만 밝혔고 세부적인 변화양상 등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후의 일본의 이솝이야기를 연구하여 이솝우화의 유입과 교과서 수록 양상

10) 허경진, 임미정, 「윤치호 『우순소리』의 성격과 의의」, 『語文學』, 2009

11) 김경정, 「『이소호모노가타리(伊曾保物語)』 연구-『신정 심상소학』, 『일본어문학』, 2010

을 살펴보고 일본의 번역문학이 국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일본 최초의 서구문학 번역서인 『이소호모노가타리(伊曾保物語)』의 여러 이본 가운데 원전을 찾기 어려워 의도하였던 『신정 심상소학』과 일본의 『이소호모노가타리(伊曾保物語)』와의 비교가 원래의 연구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식적인 특징을 찾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솝우화’ 자체의 형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시한 특징에 대해 정확한 고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구문학사 속의 ‘이솝우화’ 원전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논리에 대한 준거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장정희<sup>12)</sup>(2011)는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단형 서사물의 변화 양상과 특징」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 『조선어독본』에 수록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사물이 각 교육령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양상과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제 1·3·4·7차 교육령기를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따라 교과서 내 서사물의 이입, 수록, 배제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일제 강점기 식민지 교육의 본질을 밝히고자 했다. 그에 대한 예시를 ‘욕심 많은 개’로 들어 식민 초기의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서 ‘조선적인 것’의 서사물이 배제되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 ‘욕심 없는 개’ 서사가 유입되어 유교적 전통 속에서 내면화된 금욕의 경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논리와 습합되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고 논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솝우화’ 그 자체에 관련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각 식민지 교육령 별 텍스트의 세부적 차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남미영<sup>13)</sup>(1989)은 「한국 문학에 끼친 이솝우화의 영향연구(I)-문학교육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솝우화 수용의 배경과 경로, 교육적 역할을 분석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변용과 그러한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

---

12) 장정희,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단형 서사물의 변화 양상과 특징」,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13) 남미영, 「한국 문학에 끼친 이솝우화의 영향연구(I)-문학교육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989

고 있다. 기존 연구물 중 가장 한국 문학교육에 끼친 이솝우화의 통시적 고찰을 잘 이루어내고 있으며, 개화기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의 이솝우화 교과서 수용현황을 작품별로 도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놓았다. 특히 이솝우화 자체의 가치관을 분석하여 이것이 왜 한국 문학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본고의 논문 방향과 가장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문 집필시기에 의해서인지 그 이후의 교육과정에서의 이솝우화의 수용 양상을 알 수 없고, 많은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하여 내용의 깊이보다는 어떠한 정보의 제공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 교과서에 최초로 실린 서구번역문학인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이솝우화’의 정의에 따른 개화기 교과서들의 우화 교재 일람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둘째, 이솝우화는 주로 초등학생을 학습대상으로 한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는 근대에 들어서야 아동을 교육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한 중요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선행연구한 부분이 없으며, 교과서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적인 효용 정도만 언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셋째, 근대화교육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서구번역문학인 『이솝우화』의 교과서 수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유입 시기인 개화기 때의 연구 자료를 깊이 고찰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큼이나 실제 자료인 교과서 세부텍스트의 수용과 변화의 통시적인 고찰도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특정시기의 자료인 『신정 심상소학』만을 대상으로 삼아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분석 작업을 소홀히 한 한계점이 있다.

넷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갖는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교과서도 그 시

대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성을 배제한 채 이해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특수성과 당시의 교육이념 등의 연계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시기에만 고착된 극히 제한적이고 보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서구번역문학인 이솝우화가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에 등장한 이래로 국어과 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때, 선행연구들의 아쉬운 점들을 반영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이솝우화의 유입 시기인 개화기 때부터 그 이후의 교과서에 실린 자료들의 세부텍스트 수용과 변화의 통시적인 고찰을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시기마다의 사회적 특수성이나 교육이념 등과의 연계에 근거 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 교과서에 꾸준히 수록된 이솝우화의 양상과 특징 등을 밝히기 위하여 개화기부터 식민지, 해방 이후까지의 초등학생용 국어과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들의 교과서들은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잘 대변하여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 현 교과서의 연원이 되는 근대적 교과서로서 연구 의의가 깊다. 그리고 개화기시대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학습자의 흥미와 근대성을 고려하여 서구문물을 수용한 글 제재들을 수록하였으며, 이솝우화도 이때에 학부편찬 교과서에 학습제재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실렸다.

그리고 이솝우화 교과서 수록 시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는 짧은 서사체 형식이라는 특징적인<sup>14)</sup> 부분에 주목하여 초등 저학년 혹은 처음으로 국어과 학습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교과서 범위를 초등학생용 국어과 교과서로 제한하였고 각 시기별 통시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교

---

14) 전용호(2006) 앞의 글, p.215

과서 수록양상이 가장 많은 ‘욕심 많은 개’를 중심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이와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분석의 통시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각 시대적 배경에 따른 교육 이념, 이를 반영하여 편찬된 국어과 교과서의 특징, 각 교과서별 수록된 특정 텍스트인 ‘욕심 많은 개’의 수용양상과 특징을 서술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II장에서는 이솝우화의 정의를 확인하여 어떠한 특징과 교육적 가치가 있기에 국내에 유입되어 지금까지 수용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III장에서는 개화기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대교육이 진행되고 아동이라는 범주가 형성되어 근대화를 이룩해나가는 모습을 교과서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이 장에서부터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의 교과서 수록의 시대별 의의를 분석해나가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일제시기의 조선교육령 발표에 의한 식민지기 교육진행 과정을 분석하고 각 교육령별 교과서 속의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해방 이후의 교육양상에 따른 국어교과서 속 이솝우화의 변화된 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솝우화의 이해

### 1. 이솝우화의 정의와 기원

우화란 장르의 정의를 내려 보면 우화는 우화란 Fable(영미), Fabel(독일), Fables(프랑스) 등으로 쓰이는데 그 어원은 라틴어 Fabula(사람의 떠드는 이야기)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Fable의 사전적 의미는 교훈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표현방식으로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특성적인 면을 대표하고 그 내용에 도덕이나 교훈이 제시되어 있는 짧은 이야기이다<sup>15)</sup>. 정리하면, 우화는 도덕이나 그 밖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쓰인 교훈적 문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의 교훈은--이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간략한 동물이야기라고 정의된다<sup>16)</sup>.

이러한 우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하여 기원전 700년경 헤시오도스의 작품에 사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극작가 또는 역사가, 철학자들의 작품에서 인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sup>17)</sup>. 이러한 우화가 다른 작품에 인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승되기 시작한 것이 이솝과 연관되기 시작한 기원전 5세기 말부터이며 그 후 오랫동안 구비 전승되어 오다 테메트리우스팔레레우스에 의하여 서구 최초의 우화집인 ‘이솝의 우화’가 편집된다. 이를 기점으로 그리스 우화의 대표작가로서 이솝의 명성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솝이 실제 존재한 인물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증거는 거의 없으며 구비 전승되어왔기 때문에 이솝이 창작한 것이 아닌 이솝이란 이름과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이솝우화가 적층문학으로서의 성격과 기록문학으로서의 성격이 혼합되

15) 권정애, 「한국 우언문학과 France 우언문학의 비교연구」, 『이화여대 문리대 문집2』

16) 심향분, 「이솝우화의 아동문학 교육적 가치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

17) 장지연, 「동서 문화 교류의 한 접점으로서의 우화 연구 - 중세 유럽 라틴어 우화 전통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2008, pp.138-139.

18) 장지연(2008), 앞의 책, p.139.

면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 이후 서양과 동양을 넘나들며 전파되어 이솝우화만의 특징적인 범주를 만들어 내며<sup>19)</sup> 전승되었고 우리나라도 근대개몽기에 영향을 받아 교육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교과서에 이솝우화가 수록되었다.

## 2. 이솝우화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이솝우화에는 여타의 다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이상적인 존재보다는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진 동물들이 등장한다. 경솔함, 허욕, 잔인성, 명예 등을 추구하는 동물들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해 권선징악의 결말은 없으며, 약자를 위한 비현실적인 기적이나 도움도 없다. 기존의 도덕적 관념인 성숙의 추구나 진실성을 강조하던 이론과는 다르게 그저 각자의 힘으로 상황에 알맞게 대처해야한다고 일러주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으로 전달한다<sup>20)</sup>.

실제로 이솝우화는 성인에게 삶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토론회장이나 연회장 등에서 연설할 경우 연설자의 지혜나 재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용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취학 전 아동이나 저학년 아동들에게 이솝우화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루소(Rousseau)는 이솝우화의 아동 교육적 효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의 저서 『에밀』을 보면 “우화의 도덕성은 아이에게는 씹을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한 것 이어서 아이에게 미덕을 가르치기보다도 오히려 악덕을 가르치기 쉽기 때문에<sup>21)</sup>”라고 언급하며 성인은 처세술을 익힐 수 있을지 몰라도 아동들은 이해력이 부족하기에 부도덕의 교훈을 얻게 되기에 우화는 아동 교육용으로는 유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퐁텐(La Fontaine)이 당시 프랑스 황태자에게 바친

19) 한혜영, 「『어린이』誌 우화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9, pp. 17-18

20) 심향분(1996), 앞의 글, pp.10-12

21) 장 자크 루소(민현식 옮김), 『에밀(개정 3판)』, 육문사, 2006, pp. 169

편지를 보면 '문학의 영역에 무언가 교묘한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이솝이 도덕을 이야기한 형식일 것'이라 표현<sup>22)</sup>한 것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구성 속에 동물이라는 친숙한 존재가 등장하여 교훈을 명백히 전달한다는 특징 때문에<sup>23)</sup> 전 세계 각국의 도덕 교육의 제재로 채택되었다.

국내에서는 근대교육이 시작되는 개화기 무렵 국어과 교과서에 대거 수록되었다. 이로 보아 이솝우화는 국어과 교육의 도덕 교육적 성격을 담당하는 문학제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24)</sup>. 그리고 개화기 이후로 지금까지 교과서에 꾸준히 이솝우화가 수록되는 것으로 보아 국어교육의 도덕중시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학작품의 독서과정을 통해 인간 정신의 형성 과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문학교육 효용론에 입각한 교훈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sup>25)</sup>으로 국어교육 내에서 이솝우화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인 것이다.

### 3. 이솝우화의 국내 유입과 수용

이솝우화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때가 1897년 『신정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이라는 사실을 김병철(1975)과 김태준(1981)이 밝히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박수미(2005)는 그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 했다. 이솝우화는 1885년 무렵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이미 국내에 유입되었고, 교육용 교재로 사용<sup>26)</sup>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가 제물포를 통하여 입국한 후 배재학당(1885)을 설립했고, 그가 주관하여 발행한 『조선 크리스도인회보』이나 배재학당 학생회원들이 발간한 『협성회회보』에 공통적으로 이솝우화의 일화를 신문논설 속에 액자형식으로 차용하였다는

22) 김태준, 『비교문학산고』,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p. 55 여기서의 남미영(1989) 앞의 글 p.229에서 재인용.

23) 김정수, 「이솝우화에 나타난 도덕성 분석」, 『독서교육연구』, 2009, p.35

24) 남미영(1989) 앞의 글, pp. 233-234

25) 허재영(2001) 앞의 책, pp-246-247

26) 박수미 「개화기 신문소설 연구」, 성균관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5, p.208

것<sup>27)</sup>을 들었다. 그러므로 『신정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에 의해 이솝우화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는 김병철(1975)과 김태준(1981)의 의견은 인용이나 예시의 형태가 아닌 독립된 문학으로 학부편찬 교과서에 최초로 실렸다는 수정이 필요하겠다.

그와는 다른 견해로 이재선(1975)<sup>28)</sup>은 이솝우화가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 전해졌을 것이라 하였다. 이미 중국에서는 1608년에 천주교 포교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사적 전략의 일환으로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기인십편(畸人十篇)』을 통해 최초로 이솝우화가 소개<sup>29)</sup>되었고, 일본에서도 16세기 말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솝우화가 유입<sup>30)</sup>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한·중 간의 뿌리 깊은 사대 문화나, 운양호 사건 등에 의한 강제적 문호개방을 통한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장하였다.

27) 기독교의 선교와 전파를 목적으로 설교 시에 우화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방식은 중세시대 기독교 문화에서도 종종 사용되었으며 기독교 관련 서적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28)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5

29) 중국에서는 천주교 포교를 확장시키기 위한 수사적 전략의 일환과 서양인을 위한 중국어 어학 교재로써 이솝우화의 유입이 진행되었다. 최초로 중국에 이솝우화를 소개한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기인십편(畸人十篇)』(1608)과 디다세 데 판토자(Didace de Pantoja)의 『칠극(七克)』, 니콜라스 트리고(Nicolas Trigault)의 『황의(況義)』 등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논증의 수단으로 이솝우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솝우화가 교훈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의식개조와 계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키고자 중국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했으나, 중국은 19세기 무렵까지 문화적 우월감에 외국문화 수용에 소극적이었기에, 서양인들이 직접 번역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 『의습유언(意拾諭言)』은 서양인이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어학용 교재로 이솝우화의 익숙하면서도平易한 내용을 통해 서양인들로 하여금 언어 습득을 용이하게 만드는 목적의 책이었다.

김소정, 「번역문학과 문화변용 -이솝우화(Aesop's Fables)의 중문 버전에 대한 통시적 고찰」, 『중국어문학』, 2010.12 pp.467-470

30) 서구 활판 인쇄기를 통해 『크리스천版』 또는 『天草版』이라 불리는 인쇄물들을 찍었는데 그중 하나가 「Esopo no Fabvlas」로 라틴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어의 구어로 옮기는 것으로 로마자 표기의 이솝우화집이다. 이는 1593년의 일로 중국에서 이솝우화가 번역된 것 보다 32년 빠르게 일어난 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닌 선교사들의 일본어 학습을 위해 사용된 책이었다.

기륜길차, 「서구 문학이 일본 문학에 미친 영향 -이솝 우화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1994, pp. 33-37

그런데 이솝우화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적층문학과 기록문학으로서의 성격이 혼합되어있기에 전승자의 성향에 따라 내용의 가감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국내에 수용되었을 때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 졌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에 유입된 이솝우화의 국어과 교과서 수록 이유와 각 교과서별 세부 텍스트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Ⅲ. 개화기와 이습우화의 수용

근대 교육에 있어서 개화기는 1895년 고종의 소학교령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공포한 조선교육령 전까지를 말한다<sup>31)</sup>. 이 시기는 근대로의 도약기이며 서구의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개방의 시대였다. 그러나 근대화의 방향은 맹목적 수용이 아닌 ‘근대’와 ‘전통’의 상호보완으로, 근대적 문물을 통해 민족주의를 형성<sup>32)</sup>하고자 한 것 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개화기 우리 민족의 문자생활에 큰 변화가 이뤄진다. 줄곧 음문, 언문으로 취급받던 한글이 ‘국문(國文)’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sup>33)</sup>. 이는 민족어인 ‘국어(國語)’를 중시하고, 민중들에게 교육하여 식견을 넓혀주는 것이 곧 ‘수국(救國)’이라는 시대적 대의에 의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대적인 학교기관과 제도가 등장하였으며 개화사상에 입각한 교과서가 출간<sup>34)</sup>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 시기 교육은 구국을 위한 인재 양성의 준비단계로 근대화 추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근본 가치는 ‘부국강병, 자주독립, 국권회복’으로 자아실현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발전에 목적<sup>35)</sup>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

31) 개화기의 시기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기문(1970)은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로 이용호(1975)와 박봉배(1980)는 '1894-1910년까지로', 김경직(1998)은 '1876년-1910년까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1800년 후반기부터 1910년대에 이르는 약 30-40년 정도를 개화기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화기 국어과 교과서를 연구하는 목적이 있기에 개화기를 본문처럼 구분하고자 한다.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 pp. 28-35

이용호,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천사, 1975

박봉배, 「개화기의 국어과 교육 연구」, 『새교육』, 1981, pp.20-25

김경직, 「개화기의 국어교과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32) 류시현,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pp. 13-14

33) 김성준, 『일제강점기 조선어교육과 조선어말살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10, pp.52-55

34)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상고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 학지사, 1995, p.97

35) 조연순(1995), 앞의 책 p. 102

## 1. 근대교육과 아동

유럽의 중세사회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는 어른이나 젊은이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어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귀여워하기’가 가능한 애정의 대상자였을 뿐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에 이르러 아이들을 교육하여 이성적인 인간의 형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학교라는 제도와 교육방법이 대두되었고, 교육대상인 ‘아동기’라는 독자적인 계층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sup>36)</sup>.

중세 조선에서도 아동기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그저 서당에서 아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연령들이 모여 학습을 할 뿐이었다. 이들을 일컬어 ‘兒孩’ ‘幼’ ‘蒙’ 등의 명칭이나,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幼詩’, ‘少時’ 등으로 일컫는 용어<sup>37)</sup>들이 있었지만 이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결핍된 개별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1883)를 필두로 근대식 학교들이 연이어 건립되고<sup>38)</sup> 1895년 고종이 ‘소학교령<sup>39)</sup>’을 반포하면서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습의 주체자인 근대적 의미의 ‘아동’이란 존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1894년 7월에 발표된 교육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更張의 때에 英才를 기르는 일이 제일 급한 일이다. 이에 小學校를 세워 먼저 서울에서 행하려 하니 장차 7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 모두 이 학교에 보내 五倫을 배우며, 眞文을 행하고 문자로 수신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및 만국의 지지 역사 등의 초보의 학

36) 필립아리에스, 『아동의탄생』, 새물결, 2003, pp. 523-530

37) 조희정, 「교육에 나타난 아동의 형상 :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07, p. 144

38) 이승원,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2009 pp. 21-24

39) ‘소학교령’은 만 7세부터 15세까지의 남녀아동의 취학, 공립 소학교 설립의 의무화 그에대한 국고보조, 자세한 교과목 명시 등으로 국민 의무 교육제도를 확실히 지향하였다. 아래의 『教育時論』은 ‘소학교령’ 발표이전의 정부의 입장이다.

을 3년 동안 가르치려 한다. 1년은 두 학기 나누어 힘써 가르치고... 중략.. 本 衙門은 小學校와 師範學校를 세워 먼저 서울에서 행하려 하니 위로 公卿大夫의 아들로부터 아래로 凡民의 俊秀까지 다 이 學에 들어와 經典, 字典, 六藝, 百家의 文을 배우며 아침에 외고 저녁에 익히라. 要는 장차 務를 알아 時를 구하고 內修와 外交에 각각 적용시키려 한다. 진실로 한 큰 기회이다. 大學校, 專門學校도 또한 장차 차례로 세우려 한다<sup>40)</sup>.

이를 보면 소학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국민교육의 체계를 7세 이상의 남아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의 차별을 없애고 교육의 기회를 적극 개방하면서 학령 개념의 도입, 학기제 운영, 사범학교를 통한 전문 교원 양성 등 상당히 근대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개화기에 들어서 학교라는 제도가 형성되자 가족이나 지역 안에 포함되던 아동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고 정부가 직접 계몽이라는 목적 아래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아동은 어른과 분리되며, 근대적 교육에 의해 학습자라는 주체적인 대상인 된 것이다<sup>41)</sup>. 근대의 아동은 정부의 교육제도에 따라 학교교육과 학령을 근거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성장을 경험하는 존재이기에 학생이라는 명칭으로 표면화되고 전통 사회의 아동과는 분리된 존재라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아동이 학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근대적 아동이란 범주로 형성된 것이다<sup>42)</sup>.

## 2. 이숙우화의 수용 양상-‘욕심 많은 개’의 경우

### 2.1. 소학교령 이전

40) 『教育時論』, 1894년 9월 25일 여기서는 류방란, 「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육이론』, 1991 p. 38에서 재인용

41)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소명출판, 2009, pp.11-21

42)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 20-24

전통적으로 학교라 명명할 수 있었던 성균관, 4학, 향교, 서원, 서당 등의 구(舊)교육 제도<sup>43)</sup>는 고종의 소학교령(1895) 발표 이후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근대식 학교에 그 자리를 서서히 내어주게 되었다. 그런데 소학교령 발표 이전에 이미 근대식학교는 설립되어 있었다. 1880년 원산항 개항에 따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883년에 최초의 근대학교이자 민립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sup>44)</sup>되었고,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가 1885년에 최초의 근대식 선교학교<sup>45)</sup>인 배재학당을 설립 한다<sup>46)</sup>.

전자인 원산학사는 학제와 교육내용이 전근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후자인 배재학당은 영어교습 등의 서구식 교양교육을 통해 기독교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의 일기를 보아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 나의 일은 처음의 원리 즉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돌아가 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이곳에서의 교육적, 선교적 사업의 성공적인 도입이 되기를 희망 한다<sup>47)</sup>.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미국은 근대문물과 서양기술 도입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영어가 가능한 인재가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틈타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 관직에 진출하고자 입학하였기에 학교는 날로 번창하기 시작하였고 1887년 정부

43) 김성준(2010) 앞의 책, p.75

44) 이승원(2005) 앞의 책, p.21

45) 실제로는 천주교에서 먼저 근대학교를 세웠다. 정식포교 이전이기는 하지만 1865년 교인 이덕보가 한문학당을 세워 12명에게 과학과 언문,한문을 가르쳤다. 김하찬, 「구한말 천주교회의 초등교육에 대한 고찰」, 『박상일수녀화갑기념문집』,삼화인쇄출판부,1974 여기서는 김성준(2010) 앞의 책, p.75에서 재인용

46) 1882년 기독교가 조선에 전파되는 것은 금지하지만,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는 기술문명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수립하면서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근대식 학교를 설립한다. 류방란,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한국교육사』, 1986, pp.2-7

47) H.G. 아펜젤러 Paper, #11-257, to Brother 1885. 8.13. 여기에서는 류방란(1986), 앞의 글 p.11 재인용

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현판을 받으면서<sup>48)</sup>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중국과 일본의 이숙우화 유입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조선에서도 선교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거나, 서구세력의 경제적 이득 확보를 위해서 선교사들의 교육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숙우화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배재학당의 교육과정(1888-1889)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배재학당의 교육과정(1888-1889)

##### 1) 예비 과정부

- 1 학기 - 영어 ; 독본 1권, 한문, 언문
- 2 학기 - 영어 ; 독본 2권, 철자, 한문, 언문

##### 2) 교양과정부

- 1학년 - 영어 ; 기초문법, 산수초보 독본 3권, 4권, 철자, 쓰기 및 노래 부르기, 한문, 언문
- 2학년 - 영문법, 산수(10진법), 일반과학, 독본 5권, 철자, 번역, 쓰기 및 노래 부르기, 한문, 언문
- 3학년 - 영문법, 영작문, 산수, 한문, 언문, 일반과학, 지식의 계통, 어원학, 미술, 노래 부르기<sup>49)</sup>

배재학당에서 학습한 교과는 영어, 한문, 언문(한글), 교양과목이었는데, 영어 교육의 중시는 외국어 구사 가능자가 필요했던 당시 상황에 맞춘 것이었다면, 한문교육은 조선의 전통 교육을 존중하고 도치적(陶冶的)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다. 언문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르쳤는데 이유

48) 노희창, 「배재학당의 계몽운동과 협성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010, pp.15-20

49) 배재 100년사 편찬위원회, 「배재 100년사」, 학교법인 배재학당, 1989 p53-54 여기에서는 노희창 (2010) 앞의 글, p.36에서 재인용

는 배제학당을 졸업한 학생들을 민중 계몽 선교하는 역할의 기독교 지식인으로 양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교사들은 입국 이후 조선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성경 및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번역된 각종 교리서는 배제학당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sup>50)</sup>.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습우화가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아펜젤러(Appenzeller)가 발행한 최초의 기독교 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sup>51)</sup>나, 배제학당 학생회원들이 발간한 『협성회회보』에 공통적으로 이습우화의 일화를 신문논설 속에 액자형식으로 차용<sup>52)</sup>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1897년 편찬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이전에 이미 이습우화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표로 만들고 『협성회회보』 <훈 스지가 이논딕>의 기사와 차용된 이습우화의 원문을 인용해보았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sup>53)</sup>

발간일	기사명	차용된 이습우화
1897. 5. 26	도와문답	내용에 등장하는 물새라는 소재
1898. 4. 27	직물이 밋음을 슈란케 흙	The Cobbler and the Rich Man
1898. 5. 18	늑을 참소하는 이논 제 몸이 문져 망함	The Lion, The Wolf, and the Fox
1899. 6. 12	[잡보]문명한 나라가 되면 그 후손들은 개구리나 토끼같이 약한 동물이 아닌 虎 豹 나 사자처럼 용맹한 존재가 될 것을 믿는다	The Hares and the Frogs

50) 류방란(1989) 앞의 글, p.26

51) 김영민, 「근대계몽기 기독교 신문과 한국 근대 서사문학」, 『동방학지』, 2004, pp. 247-248

52) 기독교의 선교와 전파를 목적으로 설교 시에 우화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방식은 既 언급하였듯이 중세시대 기독교 문화에서도 종종 사용되었으며 기독교 관련 서적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53) 박수미, 「개화기 신문소설 연구」, 성균관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5, pp.208-212

『협성회회보』 54)

발간일	기사명	차용된 이솝우화
1898. 2. 26	늑보- 혼 스지가 잇는딴	The Sick Lion

이 당시의 『조선크리스도인회보』 나 『협성회회보』의 단형서사 중 내용적으로 기독교 선교에 대한 것과 개화·계몽에 대한 것 등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후자에 대한 것은 유교의 허례허식과 반봉건 의식을 깨우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이 부분에서 문화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익숙한 소재와 흥미로운 이야기인 이솝우화 등을 활용하여 개화 계몽을 전파하였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한 가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서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전에 한번 활용했던 서사를 그 소재나 길이를 변형시켜 재활용하여 의도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려 하였기에 여러 단형 서사물에서 이솝우화가 다양하게 변형 되어 차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전자인 기독교 선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sup>54)</sup>.

<혼 스지가 잇는딴>

혼 스지가 잇는딴 밋우 늑고 병이들어 짐싱도 잡아먹지 못하고 비늑노 곱흔딴 혼 계교를 늑여 여러 짐싱들 보논딴 거죇 합흔 체흔며 알넌 소리를 지르며 절쑥 절쑥흔며 혼 줍고 김흔 굴노 드러가니 여러 짐싱들이 문병흔러 간 즉 그 스지가 알는 모양으로 흥증을 쓸다가 짐싱들이 갓가이 오면 곳 잡아먹으니 혼 여호가 그 계교를 알고 드러가 되 갓가히 가지 안코 떨이 서서 보니 스지가 알는 모양으로 말흔되 와서 줍 보아달나 하니 여회 말흔되 나는 못 가겏노라 내보니 여러 짐싱들이 들어간 발즈국만 잇고 나온 발즈국은 업스니 엇진 연고요 혼즉 스지의 말이 어허 그 말마라 이글이 엇지 줍던지 도라나갈 슈 업서 다 뒤거름 흔여 나갓다 하니 줍 스지는 의몽흔고 여호는 약은 짐싱 이더라 <sup>56)</sup> 『협성회회보』 1898. 2. 26

54) 박수미(2005) 앞의 글 pp.212-213

55) 함태영, 「『조선크리스도인회보』 단형서사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004, p22-29

<The Sick Lion >

The Fox, suspecting the truth of matter, came at length to make his visit of inquiry, and standing at some distance, asked his Majesty how he did? "Ah, my dearest friend," said the Lion, "is it you? Why do you stand so far from me? Come sweet friend, and pour a word of consolation in the poor Lion's ear, who has but a short time to live." "Bless you!" said the Fox, "but excuse me if I cannot stay; for to tell the truth, I feel quiet uneasy at the mark of the footsteps that I see here, all pointing towards your den, and none returning outwards."

Affairs are easier of entrance than of exit; and it is but common prudence to see our way out before we venture in<sup>57)</sup>.

<훈 스지가 잇는덕>와 <The Sick Lion>은 같은 주제이지만 스토리 전개가 상당히 다르다. 이해보아 당시에 신문의 서사적 산문들 중 외국의 문학 자료들은 대부분 그대로 번역해서 옮기기보다<sup>58)</sup>는 김필진의 임의대로 각색되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문발간의 목적이 개화계몽을 위한 교훈전달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이솝우화에서 발췌한 이야기들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경우가 별로 없었고, 주로 그 교훈과 등장 동물, 이야기의 큰 줄거리만을 차용하여 재창작된 경우가 더욱 많았다. 이는 이솝우화의 적층문학으로서의 성격에 의해 원천텍스트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풍토나 전승자의 성향에 따라 내용의 가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56) 『협성회회보』 1898. 2. 26 여기서 박수미(2005) 앞의 글 p.213 재인용

57) 『FABLES - AESOP AND OTHERS』 J.M Dent & Sons LTD, Great Britain (1953) p.64 여기서 박수미(2005) 앞의 글 p.213 재인용,

58) 단, 경향신문에 50여 편이 실린 프랑스의 『라퐁텐 우화』는 직역에 가까운 것이었고, 혹여 창작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에는 반드시 프랑스 문학의 한 구절이나 모티브, 문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박수미 「개화기 『경향신문』 소설과 프랑스 문학의 비교문학적 검토」 『人文科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pp.58-65

결론적으로, 고종의 소학교령(1895)이 공포되어 교과서가 편찬되기 이전에 이미 이습우화는 선교사들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어 학습제재로 사용되었다. 이는 낯선 종교였던 기독교의 포교를 향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이습우화의 교육적 효용을 인지하고 계몽의 도구로<sup>59)</sup>써 사용한 것이다.

## 2.2. 소학교령 이후

1895년 소학교령이 발표된 이래 학부에서는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sup>60)</sup>』(1895.7 梧秋)을 편찬하고 이어서 『소학독본(小學讀本)<sup>61)</sup>』(1895.8 仲冬)을 그리고 1897년에 『신정 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을 편찬하였다<sup>62)</sup>. 이 교과서들은 ‘國文’ 교육은 곧 계몽이요 ‘救國’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어의 읽고 쓰는 능력의 향상에 주목적을 둔 ‘00讀本’의 종합 교과서의 성격을 나타냈다.

그 중 『신정 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은 편찬방향의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책 구성이 단권이 아닌 3권 3책으로, 학년을 고려한 분권체제로 구성되어 단계별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sup>63)</sup>. 한자의 사용이 평이해졌고 문체도

59) 허경진외, 『근대 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 보고사, 2009, pp.13-14

60)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은 시기상 소학교령(1895.7)에 거하여 학부에서 편찬한 근대 최초의 국어과 교과서로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 졌다. 그러나 소학교령 발표이후 한 달 만에 급히 편찬되고 초등학생이 대상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90%가량이 한자로 쓰여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長文形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당시 시대상황으로 짐작하건데 서당식 교육으로 한자가 익숙한 학습대상자를 고려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윤여탁 외, 『국어교육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194

최윤미, 「개화기 국어교과서 제재의 형식과 내용 분석-학부편찬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 21-24

61) 『소학독본(小學讀本)』 또한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며 내용이나 문장이 길고, 난이도는 전자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특이한 사항은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교과서라기 보다는 修身성격의 도덕교과서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최윤미(2009) 앞의 책, p.25

62) 박봉배, 『한국 국어 교육전사 上』,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pp 27-36

63) 당시 소학교 학년체계는 심상과 3년, 고등과 2년(또는 3년)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신정 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이 총 3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초등저학년에 속하는 심상과 3년까지 사용한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언문일치를 이루어 현대문에 가까워졌으며 내용은 생활중심, 가정 중심, 사회 중심 등으로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특히 근대교과서 중 최초로 서구문학인 이솝우화가 대거 수록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대상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구성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교과서 편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재 면에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신정 심상소학』 서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茲에日本人補佐員高見龜와麻川松次郎으로더부러小學의教科書를編輯호시天下萬國의文法과時務의常用한者를依據호야或物象으로譬喩호며或畫圖로形容호야國文을尙用흠은여러兒孩들을위선씩닷기쉽고즈흠이오漸次호漢文으로進階호야교육호거시니므릇우리羣蒙은극가의實必으로교육호심을봄바다恪勤하고勉勵호야(중략) - 『신정 심상소학』 서문64)

위의 서문 중 ‘茲에日本人補佐員高見龜와麻川松次郎으로더부러小學의教科書를編輯호시65)’ 라는 문구로 보아 이 시기에 이미 일본인 보좌원 2명이 소학(小學)교과서66) 편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인지 학습제재 중에 친일 색채가 짙게 드러나는 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67).

‘物象으로譬喩호며或畫圖로形容호야國文을尙用흠은여러兒孩들을위선씩닷기

64) 『신정 심상소학』 서문(1897.2), 여기서 윤여탁 외(2006), 앞의 책 pp.203 재인용

65) 박봉배, 『한국 국어 교육전사 상(개정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pp.99-101

66) 소학(小學)교과서란 당시 일본이 초등학교를 부르는 명칭인 ‘소학교’를 동일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67) 권2의 제12과 ‘小野道風の이해기라’라는 오노도후의 일화와 함께 개구리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그린 삽화내용과, 卷3의 제20과 ‘日本人 居留地の 地圖라’ 같은 남산 밑의 일본인 거류지지도의 삽화를 통한 지도의 이점을 배우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있다.

- 오노도후(小野道風894-964) 일본 3대 서예가중의 한사람으로 조다이요(上代様)라고 불리는 서체를 완성한 사람이다. 화투 속 비광 그림에 개구리와 같이 그려져 있는 사람으로 이 일화가 실려 있는 것이다. 윤여탁 외(2006), 앞의 책 pp.212-215 『신정심상소학』 내용목차 참조

쉽고조흠이오漸次卅漢文으로進階하야교육할거시'라는 구절을 통해 물상으로 '비유'한다는 부분이 우화나 일화의 내용을 많이 실었으며, 서화로 '형용'한다는 부분은 근대교재 최초로 삽화를 넣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아해', 즉 근대적의미의 학습자인 아동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솝우화의 수용 또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서구 문학이 이솝우화이며 그 이후에 일본 내의 교과서<sup>68)</sup> 속에서 이솝우화를 도덕적, 교훈적으로 채용하여 이솝우화의 대중화<sup>69)</sup>를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솝우화를 중요시한 이유를 기룬길차(1994)<sup>70)</sup>는 그 내용들이 도덕성을 중시하는 일본의 국민성 때문에 이솝우화가 서구 번역문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자되고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일본의 『심상 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 전7권이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과 책이름도 유사하고 이솝우화를 상당부분 채용하고 있는 것도 유사<sup>71)</sup>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sup>72)</sup>.

68) 이솝우화를 수록한 일본의 유명 교과서 와타나베(渡部濶)의 『通俗伊蘇普物語』, 후쿠자와유키치(福澤諭吉)의 『童蒙郊草』, 명치정권의 문부성이 제작한 『심상 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

69) 김태준,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 24호, 1981, p.116

70) 기룬길차, 「서구 문학이 일본 문학에 미친 영향 -이솝 우화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1994, pp.42-47

71) 김태준(1981), 앞의 글 p. 117

물론,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권 하에 있기에 개화기 이전부터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사서, 오경 등의 수신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와 학풍이기에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독본교재는 국어교과의 교재이지만 단순히 국어능력의 신장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서구문학인 이솝우화 같은 글을 실어 덕성함양이라는 수신과목의 목표를 함께 추구한 부분들이나, 이를 통해 교화나 개화라는 목적의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어교과서 인테도 불구하고 도덕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일본교과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이다.

72) 일본의 『심상 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이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견을 제시한 학자들

김경정, 「『이소호모노가타리 (伊曾保物語)』 연구- 『신정 심상소학, 2010』

김태준,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 24호, 1981

김혜정, 「근대개몽기 국어교과서 내적 구성원리 탐색」, 국어교육연구, 2003

남미영, 「한국 문학에 끼친 이솝우화의 영향 연구(I);문학교육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새국어교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의 권 3의 총 97과 중 이솝우화는 7편이 실려 있으며 당시의 수록양상의 명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신정 심상소학』에 실린 이솝우화<sup>73)</sup>

제 1권	제 20과	貪心있는개라
	제 27과	조고마흔 洋이라
	제 29과	가마귀와 여호의 이어기라
	제 30,31과	葡萄田
제 2권	제 19과	여호와 괴의 이어기라
	제 25과	가마귀가 조개를 먹는 이어기라
	제 31과	사슴이 물을 거울 슴음이라
제 3권	제 23과	狡猾한 馬라

이 중 본고에서는 제1권 20과에 실려 있는 ‘貪心있는개라(욕심 많은 개)’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하 교과서를 통틀어 가장 많이 수록<sup>74)</sup>되었기에 이것을 중심 텍스트로 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예시1 ] 『신정 심상소학』 卷1 第 20課. 貪心 있는 개라.

흔개가,고기흔덩이를물고,다리를건널시그다리아리도,또흔,저와긋치고기를,문,개가잇는것

육』, 1989

조문제,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교재에 관한 연구 (1)-문학적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생활』, 1986

최윤미, 「개화기 국어교과서 제재의 형식과 내용 분석 : 학부편찬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3) 『신정 심상소학』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 문화사, 1977참조

74) 박영기(2008), 앞의 글 p.42

\* 개화기 초등국어과 교과서 이솝우화 수록양상

이솝우화명	신정심상소학1897	초등소학1906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	최신초등소학 1909
욕심 많은 개	제1권 20과	제5권 8과	제2권 14과	제 2권 14과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 문화사, 1997참조

슬보고, 貪心이發호야, 마저 썩서먹고즈호야, 다를아리로同호야지젓소이다.

그러나, 제, 지즐야고, 입을열썩, 물엇든, 고기가忽然내에썩러저물속으로드러긋소.

그썩에, 다리아리잇는개의입에고기도흔가지업서젓소. 이는, 앓가實狀개처럼보인것슨, 제이, 물에빗최여, 그처럼된것시오이다.

그러므로이개 慾心만너다가저물엇든고기도, 못먹엇소이다<sup>7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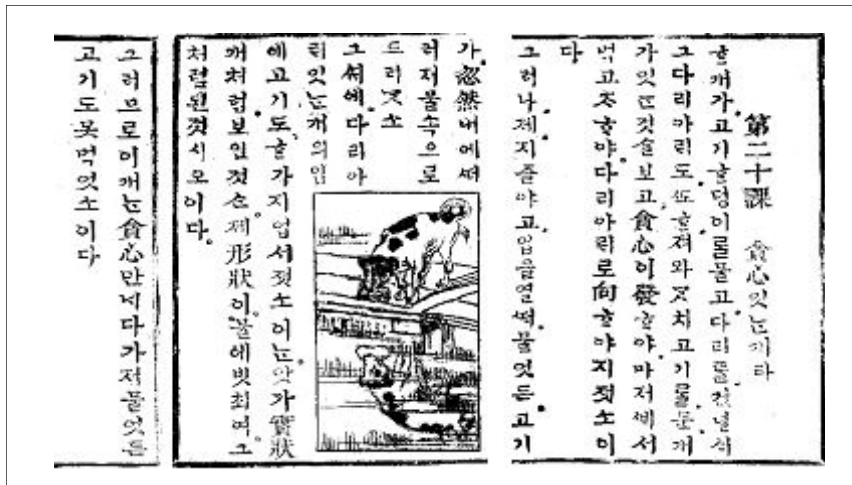


그림1)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 「貪心있는 개라」<sup>76)</sup>

이미(既) 언급 하였듯이 [예시1]을 보면 『신정 심상소학』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자의 사용이 평이해진 국한문 혼용체로, 문체도 현대문에 가까워져서 내용 이해가 쉽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전래되는 원전을 보아도 이습우화의 형태는 ‘내용+ 교훈’의 모습<sup>77)</sup>을 이루는데 이 글에서는 교훈을 별도로 적지는 않고 내용을 인용한 후 ‘그러므로이개는慾心만너다가저물엇든고기도, 못먹엇소이다’라며 글의 말미에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닌 교훈으로 느껴야 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끝난다. 그 이유는 1895년 공포된 「소

75)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 「貪心있는 개라」卷 1 제 20과, 여기에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 문화사, 1977, pp.259-261 영인본에서 재인용

76)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 「貪心있는 개라」卷 1 제 20과, 여기에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 (1977), 앞의 책 pp.259-261 영인본

77) 장지연, 「동서 문화 교류의 한 접점으로서의 우화 연구 - 중세 유럽 라틴어 우화 전통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8 pp. 136-138

학교교칙대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화기 단형서사문학인 이  
습우화의 특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讀本의 文法은 平易케 하야 普通國文의 模範됨을 要하는 故로 兒童이 理會하기 易하  
야 其 心情을 快活純케 함을 探함이 可하고 또 그 事項은 修身 地理 歷史 理科 其他 日  
用生活에 必要하고 教授에 趣味를 添함이 可함<sup>78)</sup>. - 「소학교교칙대강」 1895

이를 보면 독본교재는 평이하게 써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범을 보  
여주어야 하고, 아동의 이해를 쉽게 하고 그 심정으로 쾌활하고 순정하게 한  
다는 것이다. 즉, 아동이 글을 읽으며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  
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글을 교과제재로 선택하기를 요구한 것이  
다. 이에 [예시1]과 같은 문학적인 혹은 적어도 문학적 표현이 담긴 글의 범  
주에 들어있는 이습우화를 수록하여 독본제재의 목표인 문식능력 향상과 함  
께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정서적 위안, 심미적 안정감, 전인성(全人性)  
등의 내면화과정을 통한<sup>79)</sup> 자아의 성장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교육  
은 그것이 곧 개화, 계몽이고 구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  
습우화의 형식인 ‘내용+ 교훈’이 아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이습우화의 내  
용만으로 구성된 읽기 자료’의 형태가 된 것이다.

그 이후 ‘욕심 많은 개’는 『신정 심상소학』(1987)이 발간된 지 9년 뒤에  
나온 『초등소학(初等小學)』(1906)에도 실려 있다. 이 교과서는 갑오개혁과  
외세의 자극으로 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인 구한말에 최초의 교육  
구국단체인 대한국민교육회<sup>80)</sup>가 국민교육의 보급이라는 활동을 위하여 1906

78) 「소학교교칙대강」 1895, 여기서는 윤여탁 외(2006) 앞의 책 pp. 172-174에서 재인용

79)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6판』, 삼지원, 2012, pp. 18-20

80) 신혜경, 「大韓帝國期 國民教育會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5-8

國民教育會는 1904년 8월 24일 非정치성을 표방하면서 교육단체로 설립되었다. '일반국민의 교육을 보  
급'하는 목표에 따라 학교설립과 교과서 편찬을 주요활동방안으로 내세우고 보광학교(1905)와 한남학  
교(1906)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민사범학교(1906)를 설립했다. 교  
과서는 국사과목의 『대동역사략』과 국어교과서인 『초등소학』(1906)을 간행하였고, 각종 강연회나

년(光武 10)년 10월에 『초등소학(初等小學)』 卷 1-6을 편찬하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 권 7,8을 간행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교과서(普通學校學徒用國語科敎書)』이다. 이 교과서는 민간단체에서 편찬한 최초의 교과서로 이듬해 학부에서 편찬된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1907) 보다 제재의 양이 많고 내용이 다양하며, 주제 면에서 이국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의 자주적 내용들을 많이 실었다<sup>81)</sup>. 이 교과서는 민간에서 편찬되었지만 우리말과 순한글 표기로 언문일치체 완성에 어느 정도 다가섰으며 단원구성에 있어 체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교재의 모범이 될 만한 교과서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학자에 따라서는 『초등소학(初等小學)』을 최초의 근대식 교과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82)</sup>.

구성은 총 8권으로 되어 있지만, 2권씩 1책으로 묶어 4책으로 장정(裝幀)하였는데 당시의 학제가 보통학교 4년으로 된 것을 감안하면, 1년에 두 권의 분량의 교재를 학습하여 4년에 총 8권의 교과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년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편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신정 심상소학』에서 학습제재의 명칭이 절이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초등소학』에서는 제재의 내용을 요약하여 명칭을 선정하는 양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정 심상소학』에서 보이는 '~이이기'라는 형태는 사라졌지만, 부분적으로 '~話'식으로 그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교과서사이의 발간 년도가 9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있다. 이미 『초등소학』이 발간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이이기'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학습대상자인 아동들이 하나의 서사장르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3)</sup>. 제재 면에서는 역시 이습우화가 여

---

저술활동을 통한 대국민계몽활동을 벌였다. 한편으로는 국권침탈에 대해 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고 1907년 12월 홍사단에 그 사업을 인계하면서 해체 되었다.

81) 박봉배, 『한국 국어 교육전사 上』,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pp104-107

82) 김혜정,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서 내적 구성원리 탐색」, 『국어교육연구』, 2003, pp. 309-311

83) 박영기(2008), 앞의 글 pp.46-49

개화기 근대서사문학은 급변하는 시대상, 긴박한 사회상을 적극 반영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학의 공리적 역할에 주목하여, 작자 층이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이 특징 김윤규, 「개화기 단형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정 심상소학』에 수록되었던 것을 다시 수록한 경우가 많았다.

[표2] 『초등소학』에 실린 이습우화<sup>84)</sup>

제 2권	제 11과	토끼와 거북	
	제 16과	그림 이약이3	
제 5권	제 8과	개의 그림자	『신정 심상소학』 제 1권 20과 수록
	제 27과	蟻와 蟋蟀	
	제 29과	어린 洋	『신정 심상소학』 제1권 27과
제 6권	제 18과	蟻와 鳩	
	제 19과	每人을 悅코져 흠	
	제 28과	狡猾한 驢라	『신정 심상소학』 제 3권 23과
제 7권	제 28과	斧	
제 8권	제 15	鳥의 知	『신정 심상소학』 제 2권 제 25과

[표 2]로 보면 『신정 심상소학』과 동일한 제재의 이습우화도 보이지만 ‘토끼와 거북’, ‘그림 이약이3’, ‘蟻와 蟋蟀’, ‘蟻와 鳩’, ‘斧’가 새롭게 수용되었으며, 이 외에도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많이 실렸다. 그 이유는 『초등 소학』 발간당시가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민족적의식과 계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서사제재를 통해 학습대상인 아동들을 교육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기 및 문체를 상세히 살펴보면 1, 2권은 우리말과 순한글로 표기되고 3권부터 점차 국한문 혼용체 고문투로 변화하다 제 7권부터는 한문투가 심해지고 『신정심상소학』과 마찬가지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문어구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데 이것은 학년별 학습제재의 난이도를 조 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85)</sup>.

pp.163-169

84) 『초등소학』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문화사, 1977참조, (3,4권 누락되어 목록 제외)

85) 김혜정(2003), 앞의 책 p.312

[예시2] 卷 5 第 8課. 개의 그림자

一,犬이,고기 한덩이를,어더물고,橋上으로,徐徐히, 過去하면서,크게,깃버는더라.此時에,犬이橋下를,언뜻,見하니,또한,一犬이,有하야,彼와,同行하는지라.橋上의,犬이,其口에,문,고기를,奪음을,見할가,恐하야,橋下의,犬을,向하야,立하디,橋下의,犬도,또한口中에고기 한덩이를물고,橋上의,犬을,向하야,立하얏는지라.橋上의,犬이慾心이,猝然히,나서,橋下의,犬이,문,고기를,奪食코져하야,橋上을,同하야,한번,으르릉거리더니,기口를,開할時에,물엇든고기는,水中에,탐방,싸지거늘.橋上의犬이,홀일업서,水中을仔細히보니,橋下의犬도,물엇든고기가,또한,업서젓더라.

此는,,橋上의犬이,彼를回하야,水中의對處에,影子가,빛최인것을모르고,貪心만,내다가,彼의 가진것까지,일흠이러라.

此를,見할지어다.事를,知치못하고,오작,貪心만,내는人은此犬을見할지로다.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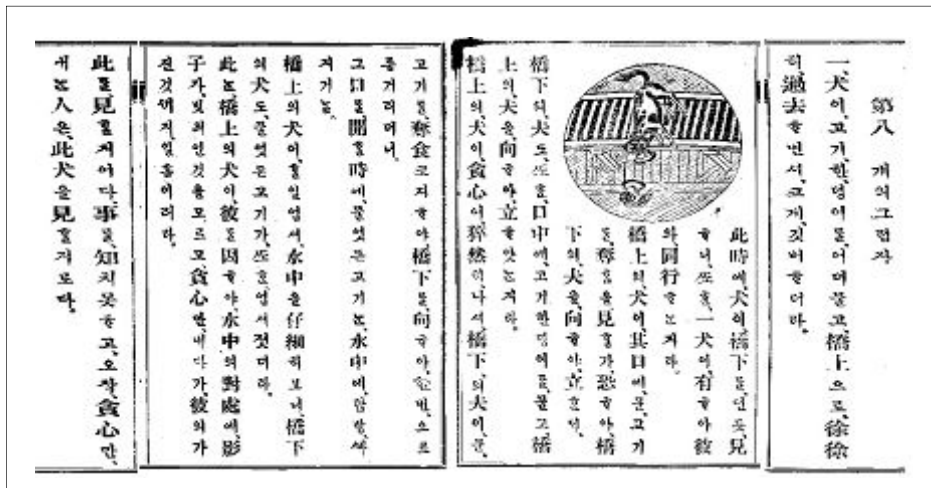


그림2) 『초등소학(初等小學)』 「개의 그림자」 87)

이 글은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가 개화기 교과서인 『초등소학(初等小學)』에 수록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 교과서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이습우화를 교재에 실었던 『신정심상소학』

86) 『초등소학』 卷 5 第 8課. 개의 그림자.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앞의 책에서 재인용

87) 『초등소학』 卷 5 第 8課. 개의 그림자.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앞의 책에서 재인용

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제목을 살펴보면, 이습우화 ‘욕심쟁이 개’를 『신정심상소학』에는 「貪心있는 개라」(이하 ‘예시 1’이라 지칭 함) 표현했고 『초등소학(初等小學)』에는 「개의 그림자」(이하 ‘예시 2’이라 지칭 함)라고 하였다. [예시1]은 일본 문부성 발행의 『심상소학독본』(1887)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미 언급하였는데 아래의 [예시3]을 통해 제목부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초등소학(初等小學)』은 편집진이 민족계몽운동가들이었기에 최대한 일본 색채를 배제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용을 축약하여 제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시3]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

한 마리의 개, 한 덩이의 고기를 물고 제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중에서 한 개의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 아래에 한 마리 개가 있어, 또한 한 덩이의 고기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이 욕심 많은 개는 어떻게 했는가? 이 개는 그편 개와 다투어 그 고기마저 빼앗고자 하여 그 개를 향하여 짖어대었다. 그러나 입을 열자마자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고기도 또한 없어져 버렸다. 이것이 마치 정말 개처럼 보인 것은 자기 형상이 물에 비친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이 욕심 많은 개는 결국 한 덩이도 못 먹고 말았다.

- 『심상소학독본』(1887) 卷 2 의 第 19課<sup>88)</sup>

그런데 『초등소학(初等小學)』은 『신정심상소학』보다 우리말과 순한글 표기로 언문일치체가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예시 1과 예시 2를 비교해보면 예시2가 서술어를 제외한 중요 문구나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신정심상소학』과 『초등소학(初等小學)』은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는

88) 『심상소학독본』(1887) 卷 2 의 第 19課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 여기서는 김태준, 「이습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 24호, 1981, p124에서 현대 구어체로 번역한 것을 재인용.

순한글 표기의 글을 학습 제재로 삼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문 중심의 글을 신는다. 예시 1은 권 1의 20과에 수록되어 주 학습대상이 1학년 이지만 예시 2는 권 5의 8과에 수록되어 3학년이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시 1]은 이습우화의 전통적 구성 형태인 ‘내용+ 교훈’가 아닌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습우화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적어 글을 읽으며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에 반해 [예시 2]는 내용 인용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훈구인 ‘此를, 見홀지어다. 事를, 知치못호고, 오작, 貪心만, 내는人은此犬을見홀지로다.’가 부여되어 있다. 이것은 『초등소학』 발간이 『신정심상소학』 이후 9년 뒤에 이루어지면서 교과서가 보다 교훈적이고 설명적으로 변하면서 국어과의 독본교과서 보다는 도덕적 교과서로의 인식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시 1이 문학적인 기능으로 교과서에 실린 제재 였다면 예시 2는 도덕적 제재로 실린<sup>89)</sup>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본 명치 정권의 문부성이 제작한 『심상소학독본』에 실린 예시 3을 보면 예시 1과 같이 설명이나 교훈구가 없이 내용만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신정심상소학』 편찬 당시 명치 정권의 문부성이 제작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번역 문학인 이습우화가 국내에 수용된 이후로 시간이 흐를수록 원래텍스트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 맞게 변용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0년대부터 교육정책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침탈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설치를 통한 고문정치를 시작하였다<sup>90)</sup>. 특히 전반적인 통치권을 장악한 일본은 내선일체를 위한 조선인 우민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의 통제라 생각하고 1906년 ‘보통학교령’을 공포한다. 이는

89) 남미영(1989), 앞의 글, pp.238-240

90)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pp. 109-111

1895년 고종이 발표한 ‘소학교령’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6년이던 초등학교 학습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실용주의 교육을 펼쳐야 하기에 교육 내용도 실업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sup>91)</sup>.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 학부에서 편찬 발간된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1907, 이하 『국어독본』)은 초등학교용 국어과 교과서로 일제의 식민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최초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sup>92)</sup>. 따라서 이 교과서 발간 시 학부 편집국에는 조선인 편수관<sup>93)</sup>과 일인 학정참여관이 존재하였고 이들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일본 주도하에 모든 정책이 변화하던 시기였기에 『국어독본』의 전체적인 편찬 방향은 일본인 학정참여관 三土忠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정규교과의 하나로 일어과를 신설하고 교육시수를 주 6시간으로 하여 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수업하도록 하였고 『국어독본』을 초등학생용 교과서라 보기에는 수준이 높게 만들었다<sup>94)</sup>.

그리하여 『국어독본』의 구성은 전체 8권으로 권1부터 4까지는 1907년 2월에, 권 5부터 8까지는 1908년 3월에 발간되었는데 인쇄는 학부인제국에서 진행한 것과 대일본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한 것이 있었다. 내용은 일본문부성의 『심상소학독본』을 상당부분 차용하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까지 거의 매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단원의 제목과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대체, 정정을 진행하였기에<sup>95)</sup> 이전의 교과서인 『초등소학』보다 서사

91) 최현섭, 「개화기학부발행국어교과서의 편찬의도-친일화과정을 중심으로」, 『논문집』, 인천교육대학교, 1985, pp. 140-141

92) 강진호,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p.25

93) 조선인 편수관으로 교과서 발간을 주도한 인물은 학부 편수국장인 어윤적으로 일본어에 능통한 친일파 관료이지만 국문연구소 개설을 통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밝히고, 친일사학을 따르지 않고 고조선을 우리역사의 시초라 기술한 『동사연표(東史年表)』(1915)를 집필하였다. 이런 행적으로 보아 그는 비록 친일 개화파여서 일본을 모방하여 문명개화를 이루고자 하였지만, 자국의 역사를 정확히 알리고자 노력한 학자였다. 강진호,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p.23

94) 강진호(2011) 앞의 책, pp.21-34

그 이유는 조선에서는 15,16세 정도의 연령층이 보통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어렵게 만들었다 하였지만 이는 식민정책 측면에서 조선인 우민화 정책으로 보통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막고, 교육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문학 이습우화 수록양상이 축소되었다

[표3] 『국어독본』에 실린 이습우화<sup>96)</sup>

제 2권	제 12과	馬	『신정심상소학』 卷 3 제 23과 『초등소학』 卷 6 제 28과
	제 18과	慾心이 만흔 犬	『신정심상소학』 卷 1 제 20과 『초등소학』 卷5권 제 8과

이러한 현상은 실용주의 교육을 펼치고 내용도 실업교육 위주여야 한다는 1906년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서 발생했다. 『국어독본』에 수록된 187과(권 7제외)중에 대부분의 제재가 실용적인 내용의 근대 지식을 계몽하는 것이었고, 그 외에는 수신적 내용을 담은 ‘문학’, 조선의 역사와 인물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와 정치<sup>97)</sup>’가 있었다.

[표 3]을 보면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는 『신정심상소학』에는 ‘貪心 잇는 개라’라는 제목으로, 『초등소학』에는 ‘개의 그림자’로 수록되었는데 『국어독본』에는 ‘慾心이 만흔 犬’이라 실려 있다.

[예시 4] 「慾心이 만흔 犬」

흔머리개가잇는디고기를물고드리를건너갈서드리아리에드또흔고기를먹는개가잇는것을 보았더라. 이개는甚히욕심이만흔개라그고기씩지씩

95) 이승구 외,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조사』,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01, pp.118-119

96) 『국어독본』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앞의 책 p.486 참조

97) 이 ‘역사와 정치’부분은 『국어독본』 편찬을 주도한 조선과 일본의 상응하는 목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조선은 ‘역사와 정치’와 관련된 내용 제재들을 통해 개화를 통한 근대성 향상과 민족주의적 성향을 통한 자주 독립을 형성하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내지만, 일본은 ‘임나일본부설’이나 백제왕들의 태반이 교사음일 하여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우리 역사를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왜곡하고 폄하하였다. 따라서 『국어독본』은 구한말 정부의 개화 계몽과 근대성 성립과 민족주의적 관념에 의한 자주독립국가 설립이라는 목적과 일본의 식민지 형성을 위한 조선인 우민화 전략의 의도가 담긴 양면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진호(2011), 앞의 책, pp.32-40

앗고져 흥야짚더라. 지즐썩에 입이 연려서 물엇던 고기가 곳물가 온디 썩진 지라이 썩아 락에 잇  
던 개가 물엇던 고기도 흥의 업서 짚더라. 甚히 욱심이 만흔 자는 도로혀 損害되는 일이 만흔니라.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卷 2 제 18과<sup>98)</sup>



그림3)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慾心이 만흔 犬」<sup>99)</sup>

우선적으로 [예시 4]의 문체 부분이 이전의 교과서 [예시 1], [예시 2]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교과서에서는 순한글 표기인 언문일치체를 완성하려 하였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는 순한글 표기의 글을 학습제재로 삼다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문 중심의 글을 싣는 교과서 구성 방식 때문에 오히려 서술어를 제외한 중요 문구나,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러나 [예시 4]는 거의完變하다 싶을 만큼 언문일치체를 완성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의 동상이몽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조선인 학부편수국장<sup>100)</sup>은 개화기의 궁극적 목표인 ‘언문’을 ‘국문’으로 인지하고 이를 교육하여 문식능력향상을 꾀하고, 그

98) 『국어독본』 卷 2 제 18과 「慾心이 만흔 犬」,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앞의 책, 재인용

99) 『국어독본』 卷 2 제 18과 「慾心이 만흔 犬」,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앞의 책,

100) 조선인 학부편수국장 어윤적은 친일적이긴 하지만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국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인이면서 개화적인 성향을 가졌다.

를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하였고, 일본인 학정참여관은 오랫동안 조선이 사대해오던 중국의 색채를 지우고 일본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고자 『국어독본』에서 언문일치체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구성 부분에서 [예시 2]는 전통적인 이습우화 구성방식인 ‘내용+ 교훈’으로 내용을 인용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훈구가 있는데 [예시 4]는 내용 이후에 간략하게 ‘**甚히욕심이만흔자는도로혀損害되는일이만흐니라.**’라고 되어있다. 이는 『신정 심상소학』의 [예시 1]과는 다른 형태로서 이 시기에는 일본의 식민주의적 관점에 의해 조선인은 전근대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고 여겼기에 조선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통한 교화를 들었다. 따라서 『국어독본』 교과서 전체적으로 교훈적 성향이 매우 강조된 것으로 보여 진다.

‘욕심 많은 개’가 실려 있는 마지막 개화기 교과서는 『최신초등소학(最新初等小學)』(1909)이다. 정인호(鄭寅琥) 편술, 이충건(李忠建) 참정의 보성사 인쇄로 발행된 보통학교용 국어과 교재로 편술자인 정인호는 독립운동가로 교육구구운동의 일환으로 이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이 시기 학부 편찬 교과서와는 달리 애국적, 군사적 색채가 진하며 유교적인 내용<sup>101)</sup>도 적고 문장도 이해하기 쉽고 이과적인 내용도 많아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단원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학부 편찬 교과서에 비하면 지리역사의 내용은 적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으로 인해 이 교과서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배포 금지<sup>102)</sup>를 당한다. 구성은 권 4의 2책으로 되어 있는데<sup>103)</sup> 교재 난이도가 매우 정확히 이루

101) 교재 내용 중에는 운동회를 설명하는 단원에서 '애국가를 부르니-'등의 표현이 있고, 그 외에도 애국적인 운동가나 학생이 군대처럼 대열을 맞추어 행진하는 등의 애국적, 군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102) 이시마즈케이코, 「통감부치하 대한제국의 수신교과서 국어독본 분석-동시기 일본 교과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9-10

103) 卷1은 63면으로 되어 있으며 순한글만으로 된 문자 및 삽화 중심의 교재로 자음자에서 모음자 다시 합자모한 일 음절자로 발전시키며 학습해 갔으며, 단원 구별 없이 일일 학습으로 기준으로 구성하여 30일 동안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재 중간에 자모의 기본 음절을 넣었으며 이것을 정리 학습으로 활용하였다. 卷 2는 60면에 26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한 혼용문의 문어체 문장과 진술체 현대문장이 혼합 된 형태이다. 그리고 제재 중간에 설정된 '복습' 사항은 단원의 내용 이해를 돕기보다는 참고

어지고 있는 것이며, 각 권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상단에 단을 설정하고 ‘소주(疏註)’를 만들어서 교수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형식인 점과, 비교적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구어체 문장이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권 2에 5개 단원 마다 5회에 걸쳐 복습 문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다<sup>104)</sup>.

또한 이 교과서에서는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를 ‘탐심만흔개’라는 제목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는 [예시 1]과 [예시 4]를 언문일치체로 반영한 듯 보인다.

[예시 5] 「탐심만흔개」

貪心만흔,犬이,고기한덩이를,어더물고, 橋上으로, 건너오다, 가, 橋下를,언뜻보니,  
 또 一犬, 더와갓치, 고기랄,물고,가는지라, 橋上에,犬이, 貪心이,急發하야, 橋下  
 의,犬이,문,고기를, 奪食코자나하야, 橋下의,犬을, 向하야,으르렁,하니, 口를,開할時에,  
 물엇던, 肉이, 水中에,탐방,싸졌다, 이犬이,제그림자를,모르고,탐심을 내다가, 저,가졌던,  
 고기,까지,일엇시니,貪心만은,人은,此犬을, 불지어다.

- 『최신초등소학(最新初等小學)』 卷 2 제 14과<sup>10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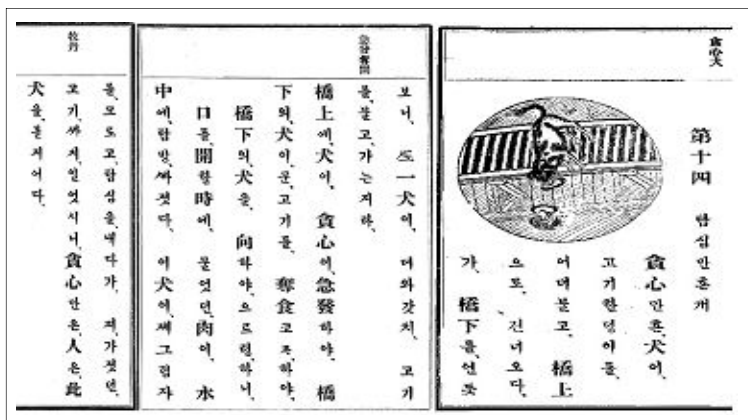


그림4) 『최신초등소학(最新初等小學)』 「탐심만흔개」

나 교훈이 되는 문구를 소개하는 형식이였다. 卷 3은 61면에 22개 단원으로 구성되고, 문체와 문장은 卷 2와 비슷하며 '복습'부분은 전부 사라졌다. 卷 4는 62면에 25개 단원이며 '관계사'만 국문을 사용하고 순한문에 가까운 글이며 그리고 '복습' 부분은 역시 수록하지 않았다. 이승구 외(2001), 앞의 책, pp.120-121

104) 이승구 외(2001), 앞의 책, pp.120-121

105) 『최신초등소학』 卷 2 제 14과 「탐심만흔개」, 여기서는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앞의 책, 재인용

[예시 5]는 전체 4권 중 권 2 제14과에 실려 있는데, 권 2의 국한 혼용문의 문어체 문장과 진술체 현대문장이 혼합된 형태라는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화기 교과서에 수록된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 텍스트 중에서 제일 현대어에 가깝고 휴지점인 반점(.) 이후의 문장을 간격을 갖고 수록하여 가시적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 ‘貪心만은,人은,此犬을,불지어다.’라고 하며 교훈적인 내용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환기 시키면서 간접적으로 글 제재를 읽고 교훈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운동가인 편찬인이 교육구구운동의 일환으로 교과서를 발간하였기에 전체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의 향상을 위하여 교훈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또한, 이 제재 상단 부분에 단을 설정하고 [그림4]의 오른쪽에서부터 ‘貪心犬’, ‘急發奪開’, ‘牧丹’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새로 나온 한자가 정리되어 내용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많은 교과서라 느끼게 한다.

#### IV. 일제강점기와 이습우화 수용

1911년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로 본격적인 식민지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는 학교를 통해 근대적인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는데 일본은 식민이라는 강제적 침탈을 교묘하게 근대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겼다<sup>106)</sup>. 식민교육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이라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언어교육은 우리의 ‘國文’인 ‘한글’을 ‘조선어’로 표기하고 외국어의 위치로 격하시켰으며 일본어를 ‘國語’<sup>107)</sup>라 부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선일치를 이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어(조선어)과 교과서는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본어과의 종속 과목의 하나로 간주<sup>108)</sup> 되고, 교과목표가 외국어 교육에 국한됨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수준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sup>109)</sup>. 결국, 이 시기의 조선어 교육은 일본의 문화, 언어를 배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1. 조선교육령과 조선어 독본

일제는 조선교육령(1911) 공포 이후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할 상황적 여력이 없어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1907)에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거나 자구를 정정하여

106) 윤여탁 외(2006), 앞의 책, pp.307-311

107) 일본어 교과 수업시간을 보통학교령기(1906~)에는 국어(조선어)과와 동일하게 6시간으로 하더니, 1차교육령기(1911~)에서는 국어(조선어)과의 2배정도인 10시간으로 늘렸다. 그마저도 1938년경 내선일체를 주장하면서 우리 국어과 수업시간을(당시로써는 조선어 수업시간) 중등학교 학습 과정에서부터 폐과시켰다. 김성준,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말살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10, pp.87-90

108) 허재영,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국어교육사, 2009, p72

109) 대부분의 학습제재를 일본적 제도와 문물의 내용으로 하거나, ‘일상행활’ 수준 정도의 텍스트로 이루어지고,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의 특징이었던 민족주의적인 애국 계몽운동에 관한 내용들을 전혀 살리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 시기의 ‘조선어 교육’은 일본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이라는 임시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한다<sup>110)</sup>. 따라서 식민 초기의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말소된 첫 교과서가 곧 『조선어독본』인 것이다.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민족적인 것을 대부분 삭제하였기에 전반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는 교훈적 내용이 담긴 우화계열의 단형서사물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이솝우화인 ‘욕심 많은 개(慾心이 만흔 犬)’도 『조선어독본』(1911)에 수록되었는데 특히 이 텍스트는 개화기에 이어 식민지기에서도 7차 교육령까지 빈번하게 수록<sup>111)</sup>된다. 이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 텍스트를 지속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이 근대화를 처음으로 수용하던 시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압력과 내부 개혁의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 상황 속에서 자주적 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근대인과 국가적 변화에 적극 순응하는 협력적 존재가 필요해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학교와 교과서라는 교육적 제도를 통해 이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민’이란 새로운 존재를 생성해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젠틀맨’과 ‘시민’이라는 기표를 통해 근대적 국민 형성이라는 기의를 통합시켜 나갔다면 일본은 수신교과서를 통해 ‘좋은 일본인=신민’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만들어내어 일본의 근대 아동들의 관념 속에서 짝 티웠다. 이런 양상은 일본 수신교과서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저학년용에서는 ‘착한 어린이’, 3학년 이후부터는 ‘좋은 일본인’이란 상징을 조직적으로 반복 학습하게 함으로써 순응하고 충직한 신민을 육성해 나갔다<sup>112)</sup>. 그러나 일본 수신교과서에서의 ‘신민’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것과는 달리 스스로 자각 하고 반성하는 주체적 존재라기보다는 순응하는 협력적 존재, 대상화되고 타율적인 인간성으로 나타난다.

110) 강진호(2011), 앞의책 pp.42-43

111) 장정희(2011),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단형서사물의 변화 양상과 특징」,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p.305

112) 이병담, 「근대일본아동의 탄생과 신민 만들기 : 『심상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005, pp. 242-244

이후 일본은 서양문물을 등에 업고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침략하여 이번에는 조선인 ‘신민’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일본 자국내 ‘신민’ 형성방법과 동일하게 수신적 내용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의식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의도에 부합되는 학습 제재가 바로 이습우화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이습우화는 외국의 순문예물로 조선의 독립이나 민족적인 성향을 고취하는 내용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고<sup>113)</sup>, 근대적 학습제재로 식민지 침탈의 목적을 교묘히 숨길 수 있었다. 둘째, 처음부터 교훈적인 훈화를 목적으로 한 문학이기에 이를 통해 조선인들로 하여금 '신민화'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셋째,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 내기 위하여 사건, 행위, 인물이 모두 단선적인 서사이기에 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제재로도 적합하였다. 하여, 식민지기 국어과 교과서에는 이 습우화의 수용이 빈번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개화기 교과서에 ‘욕심의경계’라는 전통의 도덕적 효용을 갖고 실렸던 ‘욕심 많은 개’가 식민지기에 이르러서는 대상화되고 타율적인 일본의 ‘신민’ 양성 정책에 부합되는 서사적 제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up>114)</sup>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普通學校學徒用朝鮮語讀本)』(1911)에 실린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慾心 만흔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시 6] 「慾心만흔犬」

흔마리가잇는떡고기를 물고드리를 건너갈식드리아리에도또흔고기를먹는기가잇는것을 보았더라. 이기는甚히慾心이만흔기라그고기까지썩앗고썩야졌더라.  
지즐썩에입이열녀셔물엇던고기가곳물가운데빠진지라이썩아리에잇던기가물엇던고기도 흠썩업서젖더라. 甚히 慾心이만흔者는도로혀損害되는일이만흐니라

113) 정혜원, 「1910년대 아동문학 연구: 아동 매체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pp.163-164

114) 장정희(2011) 앞의 글, p.306-307

-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普通學校學徒用 朝鮮語讀本) 권2 제21과<sup>115)</sup>



그림5)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 「慾心만흔犬<sup>116)</sup>」

이 제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어독본』(1907)을 민족주의적 내용 외에는 거의 그대로 재수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 4]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제목에서 [예시 4]와 [예시 6]은 「慾心만흔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 수록 부분도 동일하고, 삽화까지 동일하게 재수록 되어 있음을 확인 할수 있다. 따라서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은 『국어독본』(1907)의 근대성이 있는 제재는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애국적이고 민족적인 제재는 삭제하고 대신 일본의 문화의 우월성을 학습할 수 있는 제재들로 대체하였다.

115)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권 2 제21과, 여기서는 강진호 『조선어독본』, 제이엔씨, 2010에서 참조

116) 강진호(2010), 앞의 책, 영인본

## 2. 제1차 교육령과 이습우화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 공포이후 조선의 학제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보통학교 4년제, 고등보통학교 4년제로 교육 연한이 단축, 수업시수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조선인에게 저급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교육에 치중하고 중등교육은 저급한 근로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도록 했다. 또한 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 중 ‘조선어급한문’(朝鮮語及漢文, 1915~1923)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재는 일본어로 표기되었다.

이러한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일제는 『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1915~1918)을 발간했는데 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조선어’와 ‘한문’을 통합한 교과 교재로 『국어독본』(1907) 전 8권을 부분적으로 축소 수정하여 만든 전 5권짜리 교과서이다. 이 또한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처럼 조선어과 교육에서 ‘국가, 민족, 역사적인 것’이 배제되고, 주로 일상생활에서 알아 두어야 할 상식 수준의 문서 작성이나 과학 및 산업을 설명하는 근대적 설명문이나 이습우화를 번역한 우화 위주로 구성되었다. 교재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변화<sup>117)</sup>되었고 ‘조선어’와 ‘한문’을 한 교과로 묶어 통합교과 교재로서 각기 단원을 분리하여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교과서는 외국어로 전락하게 된 ‘조선어’ 교과가 읽고 쓰는 문식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 규정되면서 단지 범교과적인 근대적 문명의 모습과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체면만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 된 것이다. 텍스트 내용은 조선인 ‘신민’화 전략에 의거하여 국민성 함양, 도덕과 상식을 풍부하게 나는 것, 보통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등<sup>118)</sup>을 주로 하였지만, 수

117)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각 권마다 서문과 목차를 제시하고, 서문에는 해당 책의 목적과 용도 사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일본어 교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卷 1은 철자와 문장 학습을 위한 교재로, 기본적인 음소, 음절 학습을 중심으로 한 철자학습, 구(절) 학습, 기본 문장구조 학습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전권에 걸쳐, 2단 구성을 통해 상단의 빈칸에는 매 단원 새로운 어휘나 구, 신출 한자를 제시하고, ‘복습’ 부분이나 ‘연습’단원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연습을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윤여탁(2006), 앞의 책 pp.313-317

118) 허재영(2009), 앞의 책 pp.84-84

준과 표현 방식도 구조적으로 복잡한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단순 구조를 가진 설명문 위주였다. 결국 이 당시의 조선어 교육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으로 일본어학습을 돕기 위한 도구 교과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아동 서사문학적인 면에서 특징이 있다. 일제는 『국어독본』(1907)의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문식능력 향상을 위해 ‘이야기’인 서사문학적 내용을 대거 수록하였다. 이때 최초로 한국의 옛이야기인 「혹잇는 노인」(혹부리영감), 고전소설 「홍부전」이 실렸는데, 이는 일본에도 존재하는 유사설화를 선택하여 양국이 형제간이라는 내선일체의 의식을 담아내고자 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변형되어 수록되었다<sup>119)</sup>.

이습우화로는 ‘욕심 많은 개’ 텍스트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권 1에도 어김없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sup>120)</sup>.

[예시 7] 「慾心 만흔 犬」

개 한마리가고기한덩어리를물고다리를건너가오.다리아래를나려다본즉저와갓흔개한마리가고기한덩어리를물고잇소.그개는慾心이나서그고기까지빼앗을싱각으로나려다보고지젓소.지줄새에입이벌어져서물고잇던고기가물에서러젓소.아래잇던개가물었던고기도一時

119) 이 두 재제는 일본의 것과 유사한 것을 수록하면서 양국 간의 동질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아동문학교육이 보다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다. 「홍부전」 일제시기 독본본에 실린 「홍부전」은 시작부터 경판본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미학의 특질로 여기는 해학과 풍자, 서사 속의 ‘조선’적인 것의 삭제와 인물의 서사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설화(「腰切雀」 혹은 「舌切雀」)를 준거로 하여 일본과 조선의 지리, 인종, 역사, 문화적으로 유사하다는 동화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김혜련, 「제 1차 조선교육령기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수록재제연구-홍부전을 중심으로」,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pp.259-329

120)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의 ‘慾心 만흔 犬’ 수록 현황

권	단원	이습우화	수록현황
권 1	제 67과	慾心 만흔 犬	신정심상소학 1권 제 20과
			초등소학 권 제 8과
			국어독본 제 2권 14과
			최신초등소학제 2권 14과
			보통학교용 조선어 독본卷 2 제 21과

에 업서젧소. 너의 들은 다리아래 잇던 개를 정말 달은 개로 싱각하느냐.

-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卷 1 제 67과<sup>1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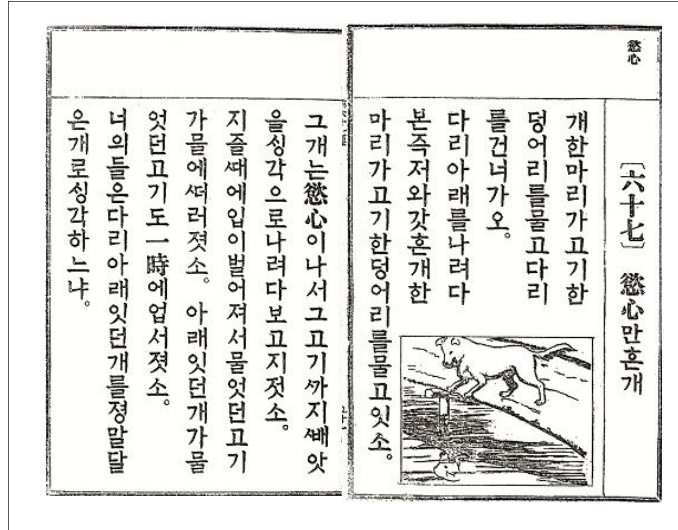


그림6)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慾心만흔犬<sup>122)</sup>」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도 『국어독본』(1907)을 수정 및 반영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예시4]와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sup>123)</sup> 제목 부분에서 [예시4]와 [예시7]은 「慾心만흔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체가 이전 교과서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림 6]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다. 아직 띄어쓰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시4]에 비해 [예시7]에는 ‘아래아(·)’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그 예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예시 4-1] 흔머리개가잇는디고기를물고드리를건너갈서드리아리에도또흔고기를

121)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卷 1 제 67과, 여기서는 강진호 『조선어독본』, 제이앤씨, 2010에서 참조, 밑줄은 인용자 표기

122) 강진호(2010), 앞의 책, 영인본 촬영

123) [예시6]은 『국어독본』(1907) 그대로 재수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텍스트라 볼 수 있는 [예시4]를 보기로 한다.

먹는개가잇는것을보았더라<sup>124)</sup>.

[예시 7-1] 개 한마리가고기 한덩어리를물고다리를건너가오.

다리아래를나려다본즉저와갓흔개 한마리가고기 한덩어리를물고잇소<sup>125)</sup>.

그리고 [예시4-1]이 ‘-보았더라’와 같이 문어적 어투를 사용하여 어떤 일이 진행되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예시7-1]은 ‘-건너가오, -물고잇소’와 같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 하듯이 서술하여 보다 구어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시4]는 ‘조선어’와 ‘한문’이 한 교과로 묶여있기에 한문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예시 7]의 서사문학제재에서는 한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4-2] 아리에잇던개가물엇던고기도흙씩업서젖더라<sup>126)</sup>.

[예시 7-2] 아래잇던개가물엇던고기도一時에업서젖소<sup>127)</sup>.

또한, 이전의 교과서들에 실렸던 ‘욕심 많은 개’들의 텍스트에서 볼 수 없는 ‘근대적 시간’의 면모가 드러난다. 일본의 근대화는 자국민들의 ‘신민’화를 통해서 정부에 순응하고 협조하는 존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부주도 하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서술하였는데, 이렇게 새로운 존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규율과 통제였다. 이를 위해서 학교라는 공간에 아동들을 모아놓고 지식을 주입하는데 효과적인 성과를 내고자 시간표를 만들고 시간의 분절성을 통하여 규율과 통제를 진행하게 되었다<sup>128)</sup>. 이러한 일본의 근대화 방법은 식민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그만하며 ‘배꼽시계’가 울리면 식

124) [예시4-1] 『국어독본』(1907) 「慾心만흔犬」 첫 구절

125) [예시7-1]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5) 「慾心만흔犬」 첫 구절

126) [예시4-2] 『국어독본』(1907) 「慾心만흔犬」 한 구절

127) [예시7-2]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5) 「慾心만흔犬」 한 구절, 밑줄은 인용자 표기

128) 이병담,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시교과서 비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94-196

사를 하던 종래의 봉건적이면서 전근대적인 조선인들을 일본은 제국의 신민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면화하려 했다. 따라서 시간은 식민지적 근대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시간의 강조는 곧 근로의 권면과 밀착 연계되어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수탈하고자 한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하게 된다<sup>129)</sup>. 즉, 식민지 조선에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꾀하고자 조선인들에게 시간에 맞춰 부지런하게 일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인 것이다. 텍스트 [예시4-2]에도 이전 텍스트에는 보이지 않던 ‘一時’라는 분절된 시간적 표현이 [예시7-2]와 같이 드러난다.

[예시 4-3] **甚히욕심이만흔자는도로혀損害되는일이만흐니라**<sup>130)</sup>.

[예시 7-3] **너의들은다리아래잇던개를정말달은개로싱각하느냐**<sup>131)</sup>.

마지막으로 교훈 구절 또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국어독본』(1907)은 이미 구국적인 내용 외에는 대부분 교훈을 주는 성향의 교과서이기에 [예시4-3]을 보면 ‘욕심이 많으면 손해를 입게 되니 경계하라’는 훈계의 문구로 글을 마무리 한다. 이에 반해, [예시7-3]은 학습 제재의 내용을 확인하는 물어보는 형태로 마무리된다. 이는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은 각 과의 이야기가 끝난 후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연습(練習)'문제를 두고 있어서 이전 시기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서사교육을 진행하였다.<sup>132)</sup>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 텍스트는 별도로 연습문제를 갖지는 않고 본 제재 속에 ‘내용 확인’수준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하였다.

129) 김혜련, 『일제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와 조선인』, 역락, 2011, pp.261-267

130) [예시4-3] 『국어독본』(1907) 「慾心만흔犬」 한 구절

131) [예시7-3]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5) 「慾心만흔犬」 한 구절

132) 박영기 「한국근대아동문학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 08, pp.84-91

### 3. 제 3차 교육령과 보통학교조선어독본

제3차 교육령기에는 일본이 내지와 외지의 일체화라는 ‘내선일체’ 구호를 내걸고 각급 학교 명칭을 똑같이 한다<sup>133)</sup>. 과목에 있어서도 ‘조선어’를 중등 교육에서는 폐과하고 초등교육에서는 수의과목으로 했다가 1939년 완전히 폐과한다. 결국 1938년 3월에 행한 3차 조선교육령의 개정은 학제상 차별을 완화했다는 명목 하에 민족 말살을 한층 더 강화<sup>134)</sup>한 것이었다. 또한 교과서는 보통학교규칙 제7조를 통해 ‘조선어급한문’을 ‘조선어’로 개칭하고 ‘한문’을 제외하고 ‘조선어’만으로 구성<sup>135)</sup>하였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이야기’의 함의가 변경되어 ‘동화’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전 시기까지는 서사문학 텍스트의 의미로 쓰였지만, ‘설명하는 글’ ‘-에 대한 이야기’로 변경되었고, 부분적으로만 ‘인물 이야기’에서 쓰이기 시작했다<sup>136)</sup>. 또한 당시의 교과서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말하는 남생이», 「심청», 「삼년고개」 같은 한국의 전래동화와 「술거», 「한석봉», 「서경덕», 「김정호», 「황희」 등의 역사 인물 이야기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된다. 그 이유는 3.1운동이라는 거국적 민족항쟁으로 이루어낸 일제의 문화적 허용정책을 들 수도 있지만 출판 인쇄능력의 향상과 상대적으로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쉽고 대상을 낮춰서 우회적으로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아동물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sup>137)</sup>.

133) 3차 교육령 각급학교 명칭의 변화

변경 전	3차 교육령	1941.03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
여자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

134) 윤여탁(2006), 앞의 책, p.293

135) 그 이유는 이 시기 ‘국어(일본어)급 한문’ 교과나 ‘조선어급한문’ 교과 모두 ‘한문학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한문체의 한자 학습과에 괴리감이 존재하였고, ‘국어(일본어)’보급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재영(2009), 앞의 책, pp.94-101

136) 박영기(2008), 앞의 글, p.147

137) 정혜원(2008), 앞의 글, pp. 163-164

그리고 조선 아동문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솝우화도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 다수 실려 있다. 그 중 ‘욕심 많은 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시 8] 「慾心 만든 개」

엇던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다리를 건너가오. 우연히 다리 아래를 내려다본즉, 제 모양과 똑 갓흔 개 한마리가 역시 고기 한덩어리를 물고잇소. 그 개는 근본慾心이 만든 고로, 그 고기까지 빼앗을 심각이 나서, 내려다보고 컹컹 지졌소. 지를 때에, 입이 벌어져서, 물엇든 고기를 물속에 떨어트렸소. 그 때, 다리 아래 잇는 개가 물엇든 고기도, 또한一時에 업서졌소. 사람도慾心이 너무 많으면, 도로혀害를 보기 쉽소.

-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卷 2 제 28과<sup>138)</sup>



그림7)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慾心만은 개」<sup>139)</sup>

[예시 7]의 제목은 「慾心만흔犬」이었는데 [예시 8]은 「慾心만은 개」로

138)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卷 2 제 28과, 여기서는 강진호 『조선어독본』, 제이엔씨, 2010에서 참조, 밑줄은 인용자 표기

139) 강진호(2010), 앞의 책

변경되었다. 이는 한자를 제한하여 되도록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래아(·)’를 소멸하고 띄어쓰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보인다. 특히 띄어쓰기부분에서는 지금과는 다르게 조사를 띄어 쓰고, 어미는 붙여 쓰는 방법이 적용되었다<sup>140)</sup>.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그 고기 까지 빼앗을 심각이 나서, 내려다보고 킁킁 지졌소.**’ 부분인데 최초로 ‘킁킁’이라는 의성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개화 초기 아동 서사문학의 존재를 인지하고 교과서에 반영했던 상황에 비하여 이제는 좀 더 아동 문학적인 방향으로의 괄목한 만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예시는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3에 실린 제재들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교과서에는 제14과의 「매암이와 개미」, 제18, 19, 20과의 세과에 걸친 「말하는 남생이」, 제23과의 「老人 이약이」 등의 교훈적 아동서사문학들이 많이 실리는데<sup>141)</sup> 이습우화 계열로 추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매암이와 개미」(매미와 배짱이) 『초등소학』(1907) 권 5 제 27과에 「蟻와 蟋蟀」로 수록된 바 있는 이야기가 이때에 다시 실렸다<sup>142)</sup>.

이 후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는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 되어 1943년에 ‘중등학교령’을 제정,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또한 사범학교 등에서 형식상으로 남아 있던 ‘조선어’라는 명칭마저 완전히 소멸시켰다<sup>143)</sup>.

#### 4. 제7차 조선교육령과 이습우화

기존의 교육령과는 달리 제7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단선학제<sup>144)</sup>를 진행하고 모든 조선적인 것을 배제하고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동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

140) 장정희(2011), 앞의 글, p.301

141) 허재영(2009), 앞의 책, pp.97-98

142) 박영기(2008), 앞의 글, p.149

143) 윤여탁(2006), 앞의 책, p.291

144) 단선학제란 ‘민족의 다름’에 따라 학제를 달리 운영하던 방식이 ‘국어(일본어) 상용 여부’에 따라 운영되다가 1938년 이후 ‘소학교-고등학교/고등여학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에 결국 조선어 교과는 ‘수의과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sup>145)</sup>. 조선어로 된 모든 교육은 암흑기를 맞았고, 교육은 전시교육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된 조선어과 교과서 『초등조선어독본』(권 1,2)는 저학년의 한글 능력 향상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식전달이나 심신 수양은 불가능했고, 동화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형식적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형태면에서 매우 간결하게 편찬되었다<sup>146)</sup>.

한권으로 된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全)은 전 학년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편찬되었고, 아동의 심리나 발달 수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전시 하의 군국주의적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동서사문학으로는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와 ‘개미와 베짚이’ 단 두 편만이 실려 있다. 그 이유는 아래의 1938년 개정교육령과 [표4]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 16조 7항 國語(日語)教育은 日語科만의 任務에 그치지 말고 各教科의 指導를 통해서도 日語教育은 實踐되어야하며, 待히 말하기, 짓기의 發表능력을 正確하게 自由自在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日本待有의 文化를 알리고 日語愛護의 精神을 길러, 소위 皇國臣民으로서의 性格을 涵養하는데 徹底를 期하도록 했다<sup>147)</sup>.

[표4 ]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全) 에 수록된 이솝우화

단원	제목	이솝우화 명칭	주제
11	(제목없음) 개가 고기를 물고~	욕심 많은 개	금욕의 경계
14	(제목 없음) 더운 여름날, 개미가	개미와 베짚이	근면과 성실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는 식민 초기의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에

145) 허재영(2009), 앞의 책, pp.118-124

146) 장정희(2011), 앞의 글, pp.322-323

147) 개정교육령(1938. 3. 15) 여기서는 박영기(2008) p.196에서 재인용

실린 이후로 ‘개미와 베짖이’는 제3차 조선교육령기의 『조선어독본』에 실린 이후로 식민지기 아동서사문학에 꾸준히 등장하는 제재였다. 일제가 이 두 제재를 주목한 이유는 1938년 개정 교육령의 ‘국어교육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황국신민 된 성격을 함양하도록’ 힘쓰는 것이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철저한 금욕’과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를 통해 황국신민 된 성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전략이며 이것이 문학교육의 1차 목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全)에 실린 ‘욕심 많은 개’의 텍스트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시 9] 十一

개 가 고기 를물고, 다리 우 로 지나갔습니다. 다리 아래 를 내려다본 즉, 물가운데 에도, 고기 를 문 개 가 잇섯습니다. 그 고기도 욕심 이 나서, 멍하고 짓었습니다. 짓을 때에, 입 이 벌어져서, 물엿든 고기 가, 물 속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 『간이학교용초등조선어독본』(全)十一과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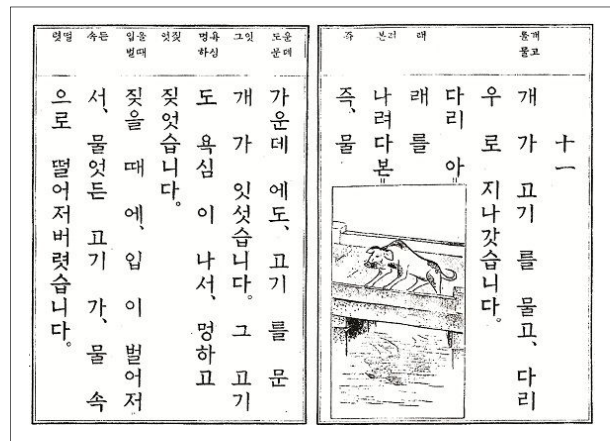


그림8) 『초등조선어독본』 全 「十一」 149)

148) 『초등조선어독본』 全 제 11과, 여기서는 강진호 『조선어독본』, 제이앤씨, 2010에서 참조, 밑줄은 인 용자 표기

149) 강진호(2010), 앞의 책, 영인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내용이나 형태면에서 매우 간결하게 편찬되어 제재의 제목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교과서들과 비교했을 때 글씨가 매우 크고 한자를 하나도 쓰지 않고 문장이 아주 쉽게 구사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예시8]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이라 말했던 ‘**킁킁 지졌소**’라는 의성어의 삽입 부분이 ‘**멍하고 짓었습니다**.’라고 표현되었다는 점과 이전의 주로 구어체적인 서술어였는데 ‘-습니다’ 라는 문장형 서술어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습우화의 특징인 교훈구도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초등조선어독본』은 단순하게 문식능력 향상을 위한 읽을거리에 불과한 독본 교재로 일제 병참기지화 정책이 본격화되던 시기 ‘황국신민된 성격’을 강조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적극 반영된 예증이라 할 수 있다<sup>150)</sup>.

---

150) 장정희(2011), 앞의 글, p. 327

#### IV. 해방 이후 교과서와 이습우화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의 근대성의 영향 때문인지 취학 인구의 급증과 교육열의 고조되었다. 그에 반해 시설과 교원, 교재의 구비 상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이에 미군정에 의해 교육정책이 주도되는 교수요목기(1945.9-1954.4)가 진행된다.

이 시기에 들어 한글의 위상이 다시 높아져 국가적 공식어인 ‘국어’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를 받아들여 교육정책이 진행되어 오늘날의 교과서로 발전할 수 있는 첫 기반을 마련했다<sup>151)</sup>. 정부 수립 이후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선택된 내용이자 실천방향인 교육과정이 1955년 제1차로 제정, 공포되었다<sup>152)</sup>. 그리고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각각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교육 방법들이 개발 공급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되어 왔다.

##### 1. 해방기와 국어교육

해방 직후 일본식 ‘독본’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자 새로운 명칭인 ‘교본’이 교과서명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청이 ‘교본반포식’을 거행할 만큼 특정명칭<sup>153)</sup>이 된 ‘교본’은 제목에서 의미하듯이 교과서가 교육의 근본이 되는 지침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미군정은 임시 행정 기관이었기에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부서가 없는 상황이어서 조선어학회의 연구진들의 힘을 빌려서 책을 만들고 발행했다. 이 때 개발된 교과서는 『한글첫걸음』, 『초등 국어교본』 (상, 중,하), 『중등 국어교본』 (상,중,하)이다<sup>154)</sup>.

그런데 교본의 편찬은 광복 이후 국어교육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임시

151) 박봉배, 「미군정기 및 초창기의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한국교육개발원』, 1982 pp.54-61

152)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pp. 122-123

153) 윤여탁(2006), 앞의 책, p350

154)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pp.46-47

방편으로 편찬한 교과서로 내용 선정 및 배열보다는 광복의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상황에서 편찬자들은 제4차 교육령기의 교과서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참고로 하였다<sup>155)</sup>. 참고로 주로 수용한 학습 제재는 조선어 독본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거나 광복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일제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인데, 설명문 단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우화나 설화 등의 서사문학적인 단원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등 국어교본』(상)에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 텍스트가 수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제4차 교육령기의 교과서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는 수록되어있지 않고, 그 외의 식민지기 초등학생용 독본교재에 모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솝우화의 정전처럼 받아들여져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복이라는 시대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선어 독본의 의존도가 높은 교본의 학습 제재들은 일제 식민지 이데올로기가 확대 재생산 될 수 있기에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방이후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 텍스트가 갖는 함의는 식민 교육사관의 잔재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변경되었다. 세부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10] 욕심 많은 개

개 한 마리가 고기 한덩이를 물고, 다리를 건너 가오.  
아래를 내려다 본즉, 개 한 마리가 고기를 물고 있소.  
그 고기를 뺏앗고싶어서 막 짚었소.  
짚을 때에, 물었던 고기는 물에 떨어졌소.  
아래 있던 개도 고기가 없어졌소.

- 『초등국어 교본』 상 十七과

155) 이는 두 교과서의 내용 비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미군정 시기 교본 가운데 제 4차 교육령의 조선어독본의 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단원은 총 98과 가운데 63과로에 달한다. 또한 기존의 제 4차 교육령의 조선어독본에 없는 단원들 중에 상당수는 다른 교육령기 독본교과서에 있는 단원들이다. 허재영(2009), 앞의 책, 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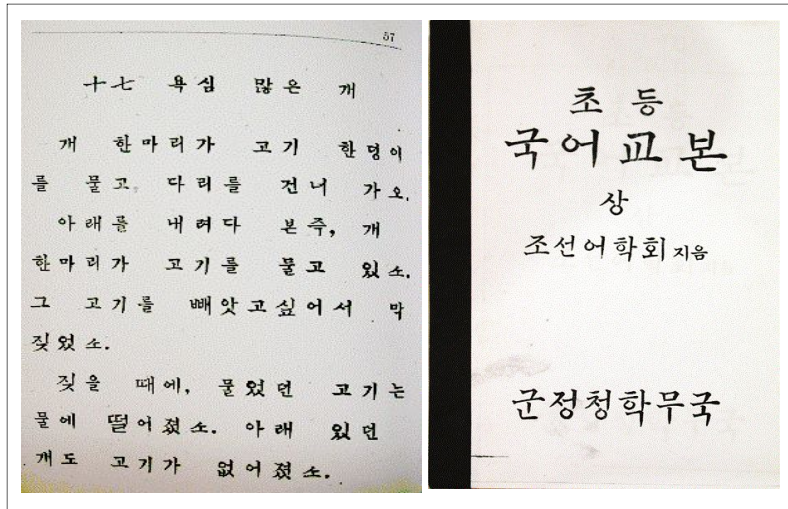


그림9) 『초등 국어교본』 상 十七 「욕심 많은 개」 156)

[예시 10]은 교과서 편찬 당시 한글 전용을 목표로 하였기에, 과목 표시에만 한자를 사용하여 숫자를 표현한 것 외에는 모두 한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전의 제3차 조선교육령의 『보통학교조선어독본』의 [예시 8]에서부터 시작된 띄어쓰기는 조사를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시 10]에서는 띄어쓰기의 방법이 지금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도 간결하고 적어졌으며 이전에 [예시 9], [예시 8]에 보이는 의성어적인 면모는 사라지고 교훈구를 적은 부분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전의 교과서 중 형태는 『초등조선어독본』에 실려 있는 [예시 9]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즉,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식이나 도덕적 내용을 내면화한 제재가 아닌 단순히 읽고 쓰는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제재로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등 국어교본』(상)의 학습 대상이 초등 1,2학년인 것을 보아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156) 군정청학무국 발간 『초등국어 교본』 상, 여기서는 미래엔교과서 박물관 소장 영인본

## 2. 국어 교과서와 이솝우화

교육사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서 해방 이전의 국어과 교과서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던 이솝우화의 비중은 점차 약화되어간다. 그 이유는 첫째, 각종 잡지, 신문 매체들이 다양한 서사문학을 보급하고 교육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화기, 일제 강점기 기간동안 지배담론이 표출되는 교과서 속의 서사교육의 한계점을 보완 할 수 있었다. 둘째, ‘그림동화’, ‘안데르센 동화’와 같은 외국동화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교과서에 유일하게 수록된 우화이자, 외국동화로 아동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었던 이솝우화가 가지는 교훈적 배타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사문학을 보다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sup>157)</sup>. 셋째, 방정환을 위시로 하여 문학가들은 동화교육의 목적이 교훈을 넘어서는 차원의 깊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솝우화가 가지는 교훈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예 술 교육으로서의 서사교육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전래동화 현상모집을 통해 동화집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중국에는 창작동화의 발생까지 이어졌다<sup>158)</sup>. 이러한 과정 들을 통하여 근대에 들어 ‘아동’이라는 범주가 중요하게 부각된 이래로 끊임없는 서사교육을 통해 ‘근대적 아동’이란 존재는 성장하게 되었다<sup>159)</sup>.

마지막으로는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의 함의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로 수록되었던 ‘욕심 많은 개’ 텍스트는 해방 이후 『초등국어 교본』(1945.12), 4차 교육과정 『바른생활(1-1)』 외에는 수록되는 경우가 없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아동들이 서사문학을 처음 접하는 개화기에는 흥미롭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제재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빈번한 노출과 단조로운 서사성에 문식력향상은 물론이고 흥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57) 박영기(2008), 앞의 글, pp.234-241

158) 박혜숙, 「서양 동화의 流入과 1920년대 한국 동화의 成立」, 『어문연구』 33권, 2005, pp.184-186

159) 박혜숙(2005), 앞의 글, pp.174-176

더 이상 이솝우화가 학습대상인 아이들에게 흥미 있는 소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증인 것이다.<sup>160)</sup>

### 3. 4차 교육과정과 이솝우화

1955년 현대적 개념의 첫 번째 교육 과정이 공포된 이래로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오면서 현대의 교육과정은 점차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기별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특색이 드러나는 장인 교과서도 꾸준히 변화되어왔다. 특히 기초교육이라 할 수 있는 초등교육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지속되었고, ‘국어’ 교과서를 통해 당대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형성하고자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sup>161)</sup>.

4차 교육과정은 도덕적이며 자주적인 어린이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어린이는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고, 공동생활에서의 준법정신과 책임감, 협동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어린이 또한 도덕적인 어린이로 규정된다<sup>162)</sup>. 또한 도덕성을 강조하고자 국어, 도덕, 사회를 합하여 『바른생활』(초등 1,2학년)이라는 통합 교과서를 만들었다. 도적능력의 향상을 중요시하여 국어과 교재가 바른생활로 대체되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솝우화가 대거 수록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욕심 많은 개’도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등장한다. 단, 그 형식이 본문의 학습제재가 아닌 단원 학습 부분에 다음과 같이 학습문제로 실리는 것이 전부다. 아래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60) 단. 일제식민지기 부각되기 시작한 「개미와 매암이(개미와 배짱이)」와 「거북이와 토끼」 같은 ‘욕심 많은 개’보다는 장문의 이솝우화는 수록되는 양상을 보인다.

161) 윤여탁(2006), 앞의 책, PP.382-284

162) 최윤정(2007), 「교과서 속의 어린이상(像)과 국가-교수요목기에서 4차 초등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pp. 258-272

[표5 ] 4차 교육과정 『바른생활』 1-1

단원	단원명		비고
1	우리 나라	파란 하늘	
2		아기나무	
3		우리 나라	
4		윤호와 영이	
5	푸른 5월	푸른 5월	
6		학교 가는 길	
7		재미있는 이야기	이솝우화 (1)개미와 비둘기 (2)학과 여우
8	6월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9		누구신가요	
10		거북이와 토끼	이솝우화 / 단원학습 '욕심 많은 개'
11		6.25 이야기	
12	여름	매미와 개미	이솝우화
13		여름 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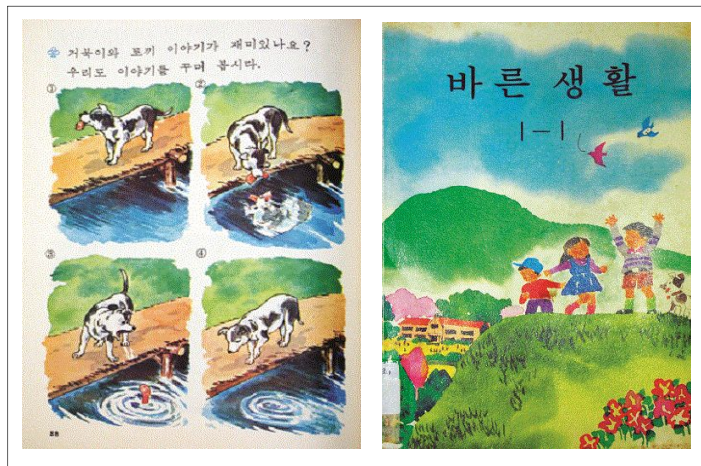


그림9) 『바른생활』 1-1(163)

이 교과서에는 총 13과의 단원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30%를 차지하는 세단원에 이솝우화가 수록되어 있다. 본고의 중심 텍스트인 ‘욕심 많은 개’

163) 4차 교육과정기 『바른생활』 1-1, 여기서는 미래엔교과서 박물관 소장 영인본

는 더 이상 본문 제재가 아닌 단원학습 문제로 수록되었다. 내용은 ‘거북이와 토끼이야 기가 재미있나요? 우리도 이야기를 꾸며 봅시다.’라고 하여 이솝우화의 이해와 수용의 확장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이로보아 개화기부터 꾸준히 실렸던 ‘욕심 많은 개’ 서사는 4차 교육과정에 와서 실질적으로는 문학적 학습제재로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된다. 단, 일제식민지 제3차 조선교육령시기부터 부각된 ‘개미와 베짚이, 토끼와 거북’ 등의 이솝우화가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솝우화 계열 중 교과서 수록 주요 학습제재가 된다.

## VI. 결론

이 논문은 국어과 교과서의 이솝우화 수용양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근대와 함께 형성된 교육제도와 교과서에 처음으로 수용된 외국서사문학인 이솝우화가 현재까지 꾸준히 수록되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 방법적인 면에서 교과서 속의 끼침의 의미를 염두에 두었다. 교육은 인위적으로 마련한 목적 지향의 인간 육성행위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교과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기에 교과서 발간 당시의 시대상이나, 교육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솝우화 수록 양상의 특징이나 교육적 효과와 의의 등을 밝히는 것을 역점으로 두었다.

단, 개화기 이후 현재까지 발행된 수많은 교과서와 방대한 내용 속에서 연구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용 국어과 교과서로 제한하고, 시대별 세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욕심 많은 개'를 중심텍스트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II 장에서는 본격적인 수용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이솝우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떠한 특징과 교육적 가치가 있기에 우리에게 유입되어 교과서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화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특성적인 면을 대표하고 그 내용에 도덕이나 교훈이 제시되는 짧은 이야기로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하여 전해져 내려오다 서구최초의 우화집인 '이솝의 우화'가 편집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이솝우화의 명성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전승과정 때문에 적층문학으로서의 성격과 기록문학으로서의 성격이 혼합되면서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이솝우화는 본래 성인에게 삶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 졌으나, 단순하고 간결한 구성 속에 동물이라는 친숙한 존재가 등장하여 교훈을 명백히 전달한다는 특징 때문에 아동교육의 제재로 사용되었다.

이솝우화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첫째,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근대식 학교에서 교육용 교재로 이솝우화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서구문화 유입의 전신자 역할을 하였기에 이솝우화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식 교과서를 편찬할 당시 처음 유입되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Ⅲ 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입된 이솝우화가 개화기 교과서에 수록되는 양상과 이유를 정리하였다. 근대와 더불어 탄생한 아동이란 존재는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존재는 하였으나 특정 계층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화기에 이르러 근대식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근대적 아동이란 범주로 형성되었다. 학습의 대상인 아동의 교육을 받는 교과서에 이솝우화가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근대교육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소학교령 이전에 이미 선교사 Appenzeller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배제학당에서 이미 이솝우화를 학습제재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그 근거로 Appenzeller가 발행한 최초의 기독교 신문인 『조선크리스도인회보』나 배제학당 학생회원들이 발간한 『협성회회보』에 공통적으로 이솝우화의 일화를 신문논설 속에 액자형식으로 차용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소학교령 이후에는 학부편찬 교과서인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에 근대교과서 중 최초로 서구문학인 이솝우화가 대거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제재 면에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이솝우화의 수용 또한 그렇다. 일본의 도덕중시 경향이 이솝우화의 대중화로 번졌고, 이것이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소학교 교칙대강」을 살펴보면 ‘아동의 이해를 쉽게 하고 그 심정으로 쾌활하고 순정하게 한다’를 거론하며 아동이 글을 읽으며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글을 교과제재로 선택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비록 일본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근대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솝우화를 수록하여 독본제재의 목표인 문식능력 향상과 함께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정서적 위안, 심미적 안정감, 전인성(全人性) 등의 내면화과정을 통한 자아 성장을 추구하여 救國을 이루고자 하였다. 개화기 시기에는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 이후 『초등소학(初等小學)』,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최신초등소학(最新初等小學)』에 '욕심 많은 개' 서사 텍스트가 실렸으며 각 교과서 발간 당시의 시대상이나 교육정책 등이 반영되어 각각의 세부적인 특징의 차이점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IV 장에서는 일제시기의 이습우화 수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911년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로 본격적인 조선 식민지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에 시작하면서 국어(조선어)과 교과서는 일본어과의 종속 과목의 하나로 간주 되고, 교과목표가 외국어 교육에 국한됨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수준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조선교육령(1911) 공포 이후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할 상황적 여력이 없었다. 하여 대한 제국기에 발행된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1907)에서 우리민족의 긍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거나 자구를 정정하여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이라는 임시용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이때에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1907)에의 단원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욕심 많은 개' 서사 텍스트도 그대로 수록되었으며 그 이후 식민지기에서도 7차 교육령까지 빈번하게 수록된다. 그 이유는 일본 자국내 '신민' 형성방법과 동일하게 수신내용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의식적 변화를 꾀하고자했으며 그 의도에 부합되는 학습제재로 이습우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화기 교과서에 '욕심의 경계'라는 전통의 도덕적 효용을 갖고 실렸던 '욕심 많은 개'가 식민지기에 이르러서는 대상화 되고 타율적인 일본의 '신민' 양성 정책에 부합 되는 서사적 제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1차 조선교육령 『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 3차 교육령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7차 교육령의 『초등조선어독본』에 '욕심 많은 개' 서사 텍스트가 계속해서 수록된다. 그 양상과 교과서

별 특징은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다뤘다.

V 장에서는 해방 이후 교과서의 이습우화 수록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45년 해방 직후 취약한 국내 사정에 의해서 미군정에 의해 교육정책이 주도되는 교수요목기가 진행된다. 그런데 미군정은 임시 행정 기관이었기에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부서가 없는 상황이어서 조선어학회의 연구진들의 힘을 빌려서 책을 만들고 이를 발행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국어교육의 공백을 없이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편찬한 교과서로 내용 선정 및 배열보다는 광복의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상황에서 편찬자들은 제4차 교육령기의 교과서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을 참고로 하여 독본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거나, 광복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일제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인데, 설명문 단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우화나 설화 등의 서사문학적인 단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욕심 많은 개' 서사 텍스트는 『초등 국어교본』(상)에 실렸다.

광복이라는 시대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선어 독본의 의존도가 높은 교본의 학습 제재들은 일제 식민지 이데올로기가 확대 재생산 될 수 있기에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방이후 이습우화 '욕심 많은 개' 텍스트가 갖는 함의는 식민 교육사관의 잔재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해방 이후 '욕심 많은 개' 텍스트는 『초등국어 교본』(1945.12), 4차 교육과정 『바른생활(1-1)』 외에는 수록되는 경우가 없다. 이는 교육사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서 해방 이전의 국어과 교과서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던 이습우화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개화기 근대 교육이 형성되면서 처음으로 '아동'이라는 범주가 중요하게 부각된 이래로 서사 교육 분야에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고, 일단 형성된 '근대적 아동'이란 존재는 끈임 없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문학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4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 도덕적이며 자주적인 어린이를 형성하고

자 하는 교육목표로 이솝우화가 대거 수록된다. 이때 '욕심 많은 개'도 마지막 교과서에 등장한다. 단, 그 형식이 본문의 학습제재가 아닌 단원 학습 부분에 활동문제로 실려 내용의 이해와 수용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전부다.

지금까지 이솝우화 '욕심 많은 개' 텍스트의 국어과 교과서 수록 양상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초기 이 텍스트는 짧은 단형서사물이기에 문학작품으로서의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염려도 들었지만, 개화기, 일제시기, 해방 이후의 시기에 각각 다른 함의를 갖고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결과를 분석해 낼 수 있었다.

개화기 시기는 근대로의 도약기이며, 서구의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개방의 시대였다. 그러나 근대화의 방향은 맹목적 수용이 아닌 '근대'와 '전통'의 상호보완으로, 근대적 문물을 통해 민족주의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시기의 교과서 속 '욕심 많은 개' 텍스트는 외국서사문학이라는 근대성으로 '욕심의 경계'라는 전통의 도덕적 효용을 갖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문식능력 향상과 함께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자아의 성장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교육은 그것이 곧 개화, 계몽이고 救國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제시기에서는 조선인 '신민'화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일본 자국내 '신민' 형성방법과 동일하게 수신내용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의식적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부합되는 학습 제재가 바로 이솝우화였고 그 중 '욕심 많은 개' 텍스트는 대상화되고 타율적인 일본의 '신민' 양성 정책에 부합되는 서사적 제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이솝우화가 아동들이 서사문학을 처음 접하는 개화기에는 흥미롭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제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빈번한 노출과 단조로운 서사성에 문식력향상은 물론이고 흥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교과서 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이

발전되었고, 좀 더 다양한 외국문학들이 수용되어 더 이상 학습대상인 아이들에게 흥미 있는 소재가 아니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식민 지배 사상이 반영된 학습제재들은 배제하려고 노력하였기에 식민지기 이습우화로 대표되던 ‘욕심 많은 개’ 텍스트는 4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수록되지 않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교과서

- 『신정 심상소학(新訂 尋常小學)』 1897
- 『초등소학(初等小學)』 1906
-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普通學校學徒用 國語讀本)』 1907
- 『최신초등소학(最新初等小學)』 1909
- 『보통학교학도용 조선어독본』 1911
- 『보통학교조선어급한문독본』 1915~1918
-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1923
- 간이학교용 『초등조선어독본』 (全)
- 『초등 국어교본』 (상)
- 4차 교육과정 『바른생활』 1-1

### 단행본

- 강진호 『조선어독본』, 제이앤씨, 2010
- 강진호,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제6판』, 삼지원, 2012
- 김병철,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을유문화사, 1975
- 김성준, 『일제강점기 조선어교육과 조선어말살정책연구』, 경인문화사, 2010
- 김혜련, 『일제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와 조선인』, 역락, 2011
- 박봉배, 『한국 국어 교육전사 上』,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 윤여탁 외, 『국어교육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1970
- 이승구 외,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조사』,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2001
- 이승원,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2009
- 이응호,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천사, 1975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2001
-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75

장 자크 루소(민현식 옮김), 『에밀(개정 3판)』, 육문사, 2006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상고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 학지사, 1995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소명출판, 2009  
 필립아리에스, 『아동의탄생』, 새물결, 2003,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아세아 문화사, 1977  
 허경진의, 『근대 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 보고사, 2009,  
 허재영, 『국어과 교육의 탐색』, 박이정, 2001,  
 \_\_\_\_\_,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국어교육사, 2009

#### 학술지논문

기륜길차, 「서구 문학이 일본 문학에 미친 영향 -이습 우화를 중심으로」, 『比較文化研究』, 1994,  
 권정애, 「한국 우언문학과 France 우언문학의 비교연구」, 『이화여대 문리대 문집2』  
 김경정, 「『이소호모노가타리 (伊曾保物語)』 연구- 『신정심상소학』, 『일본어문학』, 2010  
 김소정, 「번역문학과 문화변용 -이습우화(Aesop's Fables)의 중문 버전에 대한 통시적 고찰」, 『중국어문학』, 2010  
 김영민, 「근대계몽기 기독교 신문과 한국 근대 서사문학」, 『동방학지』, 2004  
 김윤규, 「개화기 단형서사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김정수, 「이습우화에 나타난 도덕성 분석」, 『독서교육연구』, 2009  
 김태준, 「이습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 24호, 1981,  
 김혜련, 「제 1차 조선교육령기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수록제재연구 -홍부전을 중심으로」,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김혜정,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서 내적 구성원리 탐색」, 국어교육연구, 2003  
 남미영, 「한국 문학에 끼친 이습우화의 영향연구(I)-문학교육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989,

- 류방란,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한국교육사』, 1986  
 \_\_\_\_\_, 「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육이론』, 1991
- 박봉배, 「개화기의 국어과 교육 연구」, 『새교육』, 1981  
 \_\_\_\_\_, 「미군정기 및 초창기의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한국교육개발원』, 1982
- 박수미 「개화기 『경향신문』 소설과 프랑스 문학의 비교문학적 검토」 『人文科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박혜숙, 「서양 동화의 流入과 1920년대 한국 동화의 成立」, 『어문연구』 33권, 2005,
- 이병담, 「근대일본아동의 탄생과 신민 만들기 : 『심상소학수신서』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005,
- 장정희, 「『조선어독본』에 수록된 단형 서사물의 변화 양상과 특징」, 『조선어 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2011
- 장지연, 「동서 문화 교류의 한 접점으로서의 우화 연구 - 중세 유럽 라틴어 우화 전통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2008,
- 전용호, 「고종, 순종시대 국어교과서의 서사유형 연구」, 『어문논집』, 2006
- 조문제,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교재에 관한 연구 (1)-문학적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생활』, 1986
- 조희정, 「교육에 나타난 아동의 형상 :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07,
- 최윤정, 「교과서 속의 어린이상(像)과 국가-교수요목기에서 4차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 최현섭, 「개화기학부발행국어교과서의 편찬의도-친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논문집』, 인천교육대학교, 1985,
- 함태영, 「『조선크리스토탄회보』 단형서사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004,
- 허경진, 임미정, 「윤치호 『우순소리』의 성격과 의의」, 『語文學』, 2009

#### 학위논문

김경직, 「개화기의 국어교과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1998
- 김정수, 「이습우화에 나타난 도덕성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노희창, 「배재학당의 계몽운동과 협성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0
- 류시현,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박수미, 「개화기 신문소설 연구」, 성균관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영기 「한국근대아동문학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한국외대박사학위 논문, 2008
- 신혜경, 「大韓帝國期 國民教育會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심향분, 「이습우화의 아동문학 교육적 가치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병담,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교과서 비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시마츠케이코, 「통감부치하 대한제국의 수신교과서 국어독본 분석-동시기 일본 교과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혜원, 「1910년대 아동문학 연구: 아동 매체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최윤미, 「개화기 국어교과서 제재의 형식과 내용 분석 : 학부편찬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혜영, 「「어린이」誌 우화연구」,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9,

## ABSTRACT

Languages and embraced aspects of the fable of the  
textbook-Flowering from April until the tea curriculum

Seo Kyoung Lim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bilingual and accepts the fable aspect of text books focus on analysis. Modern education systems and formed with the textbooks for the first time accepted foreign epic writers are currently the more steadily up to the fable of the study. Research methods of textbooks being put in, keep in mind the meaning of saliva. Training is provided for the purpose-oriented human is an act of artificially cultivating. These ideologies are the textbooks any form published a textbook on the subject at the time of impact, education-related discussion to take a look at the more aspects of the fable in that feature or include the educational effects and as an emphasis to say its in. First, look at the definition of an allegory about the origins of Aesop having features like the educational effect on the genre in Korea, having been introduced to the bloom language and texts have been steadily on the loaded. Secondly, each era features and education through a discussion about how to ensure that it reflects any features and a look at bilingual education and textbooks from the flow of the learned and should be deployed in forward direction, not only can you explore, take a look at the foundation of the formation of textbooks

can make a proper understanding. Third, the fable of crowned text around the ' greedy ' for each textbook contains a look at the differences in detail aspects of the stars feature or educational effects and aims to illuminate the back of the of the In other words, each of the historical languages and texts of the fable ' greedy ' capacity to analyze historical features and aspects of the more reason I want about the implications.